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스페인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스페인 왕국(el 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면적	505,957 km ² (자료원 : Expansion(Datosmacro))
수도	마드리드(Madrid)
민족(인종)	
언어	공식어: 스페인어(Castellano), 4개 자치주(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언어 공용
종교	가톨릭(55.4%), 무교(28.4), 기타 종교(3.2%), 미확인(1.5%)
기후	지중해안: 지중해성 기후, 내륙: 대륙성 기후
국가원수	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50-03-17 (자료원 :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운수협정	1991-01-14	양국은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짐.	특이사항 없음
문화협력협정	1994-04-28	양국은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청소년 개발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	특이사항 없음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4-07-19	한국과 스페인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특이사항 없음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4-11-21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과 같은 조세에 있어 양국의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부분에 있어 상호 간에 협조하기로 합의	특이사항 없음

사회보장협정	2013-04-01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 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특이사항 없음
워킹홀리데이협정	2018-10-24	양국의 청년들(각국 연간 최대 1,000명)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근로 경험과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의	특이사항 없음
항공운수 협정개정	2020-11-06	1989년 최초 체결된 것을 개정한 것으로, 항공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취항 가능 항공사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함	특이사항 없음
군사비밀보호협정	2010-01-05	○ 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그 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측이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 보안분류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비밀정보에의 접근은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지하고 비밀정보 접근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로 제한한다. ○ 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그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보안등급의 자국 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아니한다. ○ 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조사를 실시한다.	특이사항 없음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72-04-08	양국 국민들은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특이사항 없음
범죄인인도조약	1995-02-15	인도대상 범죄에 관한 기 소 또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위하 여 청구국에서 수배된 자 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 도하기로 합의한다.	특이사항 없음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2001-02-01	한국 - 스페인 운전면허 증 자동 교환이 가능하다 .	특이사항 없음
형사사법공조조약	2012-12-01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의 증언 및 진술의 취득, 형사사건 관련 정보, 서 류 및 증거물의 제공, 수 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특이사항 없음
청년교류협정	2018-10-24	○ 각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1년간 입국, 거주 및 임 시 취업을 허용하는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함 ○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연간 최대 1,000개의 장 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 함 ○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청년교류프로그램을 위 한 사증신청 승인을 자국 의 국내법령에 따라 거부 할 수 있음	특이사항 없음

항공운수협정	2020-11-06	◦ 각 체약당사자는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운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짐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 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취소하거나 협정상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	특이사항 없음
보건협력협정	2021-06-16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 보건 조치 사전 통보 ◦ 보건 분야 기술 협력 및 지원	특이사항 없음
세관상호지원협정	2021-12-24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	특이사항 없음

한국교민 수

4,530 명 (자료원 : 외교부(2021년))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2019년 10월 23~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민방문
펠리페 6세 국왕의 이번 방한은 지난 1996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방한 이후 23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펠리페 6세 스페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1950년 양국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호혜적 협력

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 임석 하에 2020-2021 한국-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 양해각서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ICEX) 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6월 15~17일 스페인 국민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5~17일 간 스페인을 국민방문하고 펠리페(Felipe VI) 국왕과 국민만찬(6.15일)을 가졌으며,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와 회담(6.16일)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국은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양해각서)',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MOU',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원의사당을 방문(6월15일)하고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였으며,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6월15일)하여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Jose Luis Martinez-Almeida) 시장으로부터 마드리드시의 황금열쇠를 증정받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6월 16일)'에 참석하여 한-스페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6월 17일)'에 참석해 양국의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2020-2021)'를 1년 연장하였다.

◦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11월 25일~29일 스페인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11.25(목)~29(월)간 스페인을 방문하였다. 박 의장은 방문 기간에 메리첼 바텟(Meritxell Batet) 스페인 하원의장과 양국 국회의장회담을 갖고(11.29),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과 양국 간 의회외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박 의장은 11.27(토) IPU 총회 본회의 연설 외에도 바레인, 터키, 오만 등 11개국 국회의장 및 마틴 춘공(Martin Chungong) IPU 사무총장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요소수 확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양자 간 의회외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페인 방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일 바르셀로나에서 테레사 리에스고(Teresa Riesgo) 스페인 과학혁신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아울러 2월 28일부터 3월 3일간 개최된 국제모바일산업전시회(MWC)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첨단 통신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MWC에 참가한 우리 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 2022년 6월 27~30일 스페인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2022년 6월 27~30일간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펠리페 6세 국왕 초청 만찬, 동포 간담회,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 펠리페 국왕과의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면담 및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참석을 통해 그간 대서양 연안 지역에 중점을 두었던 NATO의 전략개념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우리의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NATO 정상회의에 함께 초청된 아태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캐나다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또한, 6월 29일에는 스페인 각지에 거주 중인 동포 100여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갖고 스페인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동포들을 격려하였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월 8~14일 스페인 방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8~14일간 스페인에서 개최중인 2022 한국관광주간(2022 K-WeeK) 행사 참석을 계기로 스페인을 방문하여, 스페인 관광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스페인 관광포럼에 참석하였으며, 또한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측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갈라디너 리셉션을 베풀었다.

◦ 김진표 국회의장, 2022년 9월 9~13일 스페인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9~13일간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을 공식 방문, 메리첼 바텟(Meritxell Batet) 하원 의장 및 안데르 힐(Ander G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였다. 또한, 9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주요 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 현황과 전망을 청취하였다.

경제

○ 항공운수 협정 전면 개정

2018년 12월 20일, 전홍조 주 스페인 대사와 스페인 국토개발부 장관인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메코(Jose Luis Abalos Meco)는 스페인 국토개발부 청사에서 한국과 스페인 간의 항공 운수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1989년 최초 체결된 것을 개정한 것으로, 항공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취항 가능 항공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스페인 간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가 제고되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인천-마드리드(주 3회), 인천-바르셀로나(주 8회)운항 중이다.

○ 대한민국, 스페인 정부 주최 제3회 산업연결 4.0 행사 주빈국으로 참석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가 주최한 제3회 스페인 산업연결 4.0 컨퍼런스(CIC 4.0) 행사가 2019년 11월 12일 마드리드 전시박람회장(IFEM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9년에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민원기 과학기술통신부 차관, 석재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을 비롯한 한국 방문단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의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은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다양한 변화를 현실감 있게 조망하면서 우리의 △5G+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등을 소개해 1,400여 명의 정부인사 및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제 21차 한-스페인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2020년 7월 7일 한-스페인 민간 경제협력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민간경협위는 지난해 10월 11년 만에 재개된 제20차 회의 이후 20개월 만에 개최된 회의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전홍조 대사는 민간경협위 재개 이후 스페인 국왕 부부의 방한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증진의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무산되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 간 통화(우리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를 통해 지속적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이번에 개최된 온라인 민간경협위가 매우 시의적절함을 언급했다.

문화

○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동 협정은 2018년 10월 24일 발효되어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1,000명)이 최장 1년간 스페인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페인에서 언어문화적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준비의 성격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제13차 한-스페인 포럼 개최

한-스페인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제13차 한-스페인 포럼이 2020년 11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티나 가락(Cristina Gallach) 스페인 외교 EU협력부 차관, 전홍조 주스페인대사,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스페인대사,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하비에르 파론도 카사 아시아 원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동 포럼을 통해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 이뤄온 협력의 역사를 평가하고, 향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 김건희 여사,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28일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아 문화원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스페인 내 한국문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1년 한국문화원 개원 이래 대통령 부인으로서 최초로 문화원을 방문한 김 여사는 문화원 1층에서 "전통이 새로움을 입다"라는 주제(디자이너 김아영 참여) 하에 개최 중인 제1회 K-패션 전시회를 감상하고, 2층 도서관과 공예실, 세종학당 등을 둘러본 뒤, 문화원 직원 및 세종학당 교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3	2.1	-10.8	5.1	
명목GDP (십억\$)	1,421.6	1,393.2	1,280.4	1,426.2	
1인당 GDP (PPP, \$)	41,328	42,600	38,244	41,838	
1인당 명목 GDP (\$)	30,423	29,576	27,039	30,089	
정부부채 (% of GDP)	97.4	95.5	117.1	118.4	
물가상승률 (%)	1.7	0.8	-0.3	3.1	
실업률 (%)	15.2	14.1	15.5	14.8	
수출액 (백만\$)	337,117	325,694	301,513	374,248	
수입액 (백만\$)	377,635	360,990	316,586	404,769	
무역수지 (백만\$)	-40,518	-35,296	-15,073	-30,521	-
외환 보유고 (백만\$)	70,650	74,715	81,318	96,090	
이자율 (%)	-0.19	-0.12	-0.25	-0.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0.85	0.89	0.88	0.85	

〈자료원 : EIU, IMF, Datacomex, OFX, Euribor-rates, KOSIS, 스페인중앙은행, 스페인통계청〉

나. 경제 동향

2015년 이후, 스페인은 여러 국내외적 요인과 정부의 고강도 개혁 시행에 힘입어 보여준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다. 먼저, 유럽 중앙은행(ECB)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단행이 스페인의 내수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ECB는 2014년부터 꾸준히 기준금리(Euribor) 인하를 실시해 2021년 5월 25일 기준 -0.557%(1개월물)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ECB는 2015년부터 유로존 국가의 국채 등을 대량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 방안

으로 부실 은행 간의 통폐합을 위한 금융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 등을 단행했으며, 과도한 공공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강도 긴축정책을 폈다. 한편,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가격의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 등을 유도하였다.

외국인관광객 대거 유입으로 인한 관광업 호황도 스페인 경제회복에 크게 일조하였다. 스페인은 2019년 한 해 동안 8,370만 명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해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자동차 및 화학, 식품 등 스페인의 기존 효자 산업에서의 수출 호조도 지속되어 외화벌이가 늘었음은 물론 제조업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스페인의 국가 경제성장률은 2018년 2.4%, 2019년 2.0% 증가해 EU 평균('18년 2.0%, '19년 1.5%)을 상회했다. 특히, EU 전반에 경기침체가 깊어져 가는 가운데에도 2019년에는 공공소비와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각각 1.1%, 2.3% 증가했으며, 고정투자도 같은 기간 1.8% 늘어났다. 실업률도 경제회복과 함께 꾸준히 안정되어 2016년 19.6%에서 2019년 14.1%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스페인 경제 상황이 2020년 초를 기점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바이러스 전파 억제를 위해 2020년 3월 14일 '국가경계령'을 발동해 모든 상점과 요식업종 등의 운영을 금지했으며, 일반 시민에게도 불가피한 사유 외 외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국경은 물론 전국 도로 및 철도를 통제해 지역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필수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활동이 극도로 저하되었으며, 특히 스페인의 최대 산업인 관광업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10.8%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16.1%까지 상승했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0년 10월 7일 '스페인 경제재건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2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은 EU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1,400억 유로(720억 유로 보조금+680억 유로 대출금) 중 720억 유로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즉, 스페인 정부는 경제재건을 위해 EU의 보조금을 우선으로 소진한 후 대출금 활용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계획 실행을 통해 향후 3년간 국가 GDP가 연 2.5%p 추가 성장할 것이며, 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계획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2023년까지 5,000억 유로의 민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경제재건계획의 핵심 투자방향은 친환경 경제전환, 디지털 경제전환, 양성평등, 사회적 유대 강화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 모델로 전환하는 사업에 전체 예산의 37%를 투입하며,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해 예산의 33%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30%는 교육이나 사회보장시스템, 문화 스포츠 활성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산체스 총리는 2021년 5월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Espaa 2050(스페인 2050)"를 발표했다. 동 계획안은 교육의 현대화, 친환경, 복지 부문 지출 확대 등 사회의 여러 부문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세수 확대와 관련해 화석연료, 주류,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재정비해 세수 확보 비중을 현 GDP 대비 35%에서 2050년 43%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 연령을 67세 이후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공공의료 부문을 위한 지출을 현 GDP 대비 5.7%에서 7%까지 확대해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응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2021년 초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며 같은 해 5월 국가경계령이 해제되었다. 이에 힘입어 스페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1년에는 5.0%의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 2021년 가장 눈에 띄게 회복된 분야는 무역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13.4%, 12.8% 증가했다. 또한, 방역 정책 완화로 스페인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일부 개선되며 민간소비도 2020년 -12.2%에서 2021년 4.7%로 전환됐다.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며 2021년 고정투자가 전년대비 4.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스페인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치솟아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스페인의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해 2022년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8%를 기록,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7월 10.8%로 최고점 도달 후 9월에는 9.0%를 기록했다.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160억 유로에 달하는 긴급대

책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자국 기업과 가정의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지원방안은 유류비 지원으로, 스페인 정부는 주유소를 통해 유류비 리터당 0.20유로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2021년 가을부터 시행 중이던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인하 정책(전기 및 천연가스 부가세 21%→5%, 특별 전기세 5.1%→0.5%, 전기생산세 7%→0%)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그 밖에 해당 기간 중 임시고용해제(ERTE)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의 직원 해고 금지, 주택 임대료 상승폭 최대 2%로 제한, 저소득가정 최저생계비(IMV) 15% 인상과 같은 지원 방안이 제공된다.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스페인 신용보증공사(ICO)를 통해 어음보증 지원 예산을 100억 유로 총원하며, 기존 발행된 1000억 유로의 어음보증의 만기를 일시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축산 및 어업 종사 기업에 4억 30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철강, 화학 등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도 5억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 중에 있다. 그 밖에 교통 및 물류 종사 업자를 대상으로 총 4.5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각 차량당 트럭 1250유로, 버스 900유로, 소형 화물차 500유로, 택시 400유로)되며, 분기별로 지급되던 탄화수소세(연료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세) 환급을 월별 지급으로 전환한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에너지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22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법을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스페인 정부는 국내 전력 및 연료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각종 건물의 전력 사용을 최대한 제한했다. 대표적으로 저녁 10시 이후 공공건물의 외부 조명과 일반건물의 쇼윈도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2023년 11월까지 공공 및 상업용 건물의 에어컨 사용도 제한되어, 실내온도를 여름에는 27도 이하, 겨울에는 19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에, 스페인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기업들에게 원격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으며,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주 3일을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페인의 공영철도기업인 렌페(RENFE)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거리 노선 사용 월정액권을 무료로 제공하며, 마드리드 지하철 등은 동 기간 중 월정액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 가정용 자가발전 시스템 설치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민간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전력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압박 해소를 위한 스페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고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의 기준 금리도 꾸준히 상향조정 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스페인 경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우려된다. 스페인 유력 싱크탱크인 FUNCAS는 2022년 9월 스페인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말 발표와 동일한 4.2%로 유지하였으나, 2023년 전망치는 지난 발표보다 0.6%p 낮은 1.9%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동 기간은 스페인 전년동월기준 물가성장률이 소폭이나마 감소해 2022년 12월 7.5%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스페인 정부 및 주요 경제기관들도 2022-2023년도 경제전망치를 각 4% 초반과 2%대로 예측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국가경제성장률을 각각 4.3%, 2.7%로 예상했으며, IMF은 같은 기간 성장률을 각각 4.0%, 2.0%로 예상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프랑스	51,441,110,603
2	독일	36,473,125,677
3	이탈리아	27,111,325,759
4	포르투갈	26,002,044,570
5	영국	22,824,203,843
6	미국	15,355,922,254
7	네덜란드	12,197,528,611
8	벨기에	10,268,110,913
9	모로코	9,783,502,172
10	Other Europe, nes	9,038,510,33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프랑스	49,308,221,697
2	독일	34,949,654,860
3	이탈리아	26,198,590,280
4	포르투갈	24,810,478,115
5	영국	22,370,909,433
6	미국	15,639,832,433
7	Other Europe, nes	12,577,526,134
8	네덜란드	11,111,753,210
9	벨기에	9,654,826,466

10	모로코	9,610,241,469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프랑스	48,370,731,078
2	독일	33,967,060,224
3	이탈리아	23,526,944,466
4	포르투갈	22,732,498,730
5	영국	18,928,092,939
6	Other Europe, nes	14,249,930,861
7	미국	14,184,889,050
8	네덜란드	10,681,659,927
9	중화인민공화국	9,516,599,089
10	벨기에	8,564,761,97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7,569,029,686
2	프랑스	41,862,024,297
3	중화인민공화국	31,815,799,143
4	이탈리아	25,069,112,012
5	Other Europe, nes	15,653,797,877
6	미국	15,618,304,009
7	네덜란드	15,392,113,530
8	포르투갈	13,846,352,768
9	영국	13,646,018,682
10	벨기에	8,807,450,25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5,392,159,755
2	프랑스	38,438,329,446
3	중화인민공화국	32,690,535,188
4	이탈리아	23,248,715,159
5	Other Europe, nes	19,062,747,953
6	미국	17,432,584,914
7	네덜란드	15,668,443,468
8	영국	13,251,893,029
9	포르투갈	12,826,908,643
10	터키	8,511,673,04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9,343,487,564
2	중화인민공화국	33,530,261,047
3	프랑스	33,014,827,843
4	이탈리아	20,372,696,260
5	Other Europe, nes	19,536,180,995
6	미국	16,090,992,914
7	네덜란드	14,486,085,630
8	포르투갈	12,302,135,081
9	영국	10,720,168,412
10	벨기에	7,976,702,11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7,065,652,003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10,927,687,013
3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10,713,503,001
4	271019	기타	10,101,201,671
5	300490	기타	6,773,873,564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416,688,595
7	870899	기타	5,814,118,988
8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222,368,444
9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이하인 것	5,079,461,311
10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이하인 것	4,176,029,57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9,107,662,373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11,225,163,432
3	271019	기타	9,510,513,171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8,578,772,268
5	300490	기타	8,013,966,996
6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이하인 것	6,661,074,478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797,262,404
8	870899	기타	5,186,501,937
9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587,227,766
10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이하인 것	3,713,011,593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9,616,862,944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9,710,232,160
3	300490	기타	8,729,269,140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6,425,520,846
5	271019	기타	6,328,947,196
6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5,326,044,598
7	870899	기타	4,577,799,614
8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3,940,240,420
9	020329	기타	3,494,818,471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287,005,541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4,198,937,789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795,090,135
3	300490	기타	8,873,446,397
4	870899	기타	8,637,976,556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7,694,651,443
6	271019	기타	7,307,224,005
7	271121	천연가스	4,634,565,02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361,441,691
9	271111	천연가스	4,189,716,173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65,370,13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136,684,614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411,342,682

3	300490	기타	8,590,612,582
4	870899	기타	8,309,874,528
5	271019	기타	6,865,164,909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502,494,245
7	271111	천연가스	4,738,576,822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465,706,348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70,166,471
10	271121	천연가스	3,806,607,79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8,214,889,195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6,500,424,856
3	300490	기타	9,398,996,052
4	870899	기타	7,127,736,465
5	271019	기타	4,014,201,009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11,420,984
7	271111	천연가스	3,477,584,080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286,319,206
9	630790	기타	2,579,385,895
1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550,165,430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3,027	2,504	523
2019	2,770	2,651	119
2020	2,301	1,929	372
2021	2,846	2,407	439
2022	2,232	1,809	42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한국의 對스페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무선전화기, 철강 등 대기업형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로 석유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그 밖에, 2021년까지 승용차 (MTI 7411)분류되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022년부터 기타자동차(MTI 7419)로 분류되어, 2022년 1~8월 기타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78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對스페인 수입품목은 식품, 의약품, 광물, 패션용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8월 중에는 식품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 가축육류(돼지고기)나 식물성유지(올리브유)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0.9%, 45.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약품이나 기타금속광물 수입은 각각 24.0%, 20.9% 감소했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723	10	713
2	7419	기타자동차	0	8	-8
3	2140	합성수지	291	56	235
4	8121	무선전화기	83	0	82
5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63	20	43
6	7420	자동차부품	114	94	19

7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57	0	57
8	6134	아연도강판	60	0	59
9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4	6	58
10	6131	중후판	39	0	3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300	4	296
2	7419	기타자동차	269	10	259
3	2140	합성수지	215	54	161
4	8121	무선전화기	110	0	110
5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90	13	77
6	7420	자동차부품	86	91	-5
7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72	0	72
8	6134	아연도강판	64	0	64
9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1	2	59
10	6131	중후판	59	0	5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221	가축육류	0	406	-407
2	2262	의약품	11	204	-194
3	0131	식물성유지	0	115	-116
4	1190	기타금속광물	0	160	-161
5	7420	자동차부품	114	94	19
6	5113	가방	0	115	-116
7	2140	합성수지	291	56	235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7	47	10
9	0159	음료	2	49	-48

10	7290	기타산업기계	14	36	-22
----	------	--------	----	----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221	가축육류	0	406	-406
2	2262	의약품	10	118	-108
3	0131	식물성유지	0	112	-112
4	1190	기타금속광물	0	99	-99
5	7420	자동차부품	86	91	-5
6	5113	가방	0	80	-80
7	2140	합성수지	215	54	161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2	40	12
9	0159	음료	2	36	-34
10	7290	기타산업기계	10	35	-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기능성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1/US\$백만)	843.1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17.3
선정사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함께,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 확대		
시장동향	그간 한국산 중저가 화장품 판매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프리미엄급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하는 스페인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경쟁동향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계 브랜드의 시장 장악력이 여전히 높음		
진출방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어를 통해 현지 전문 유통매장에 납품 유럽 대형 화장품 박람회 참가		

품목명 2	냉방기기(가정, 산업용)		
HS Code	8415	수입액('21/US\$백만)	1,521.9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9.0
선정사유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고효율 냉방기기 교체 수요 확대		
시장동향	현지 가정 및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고효율 냉방기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 또한, 스페인 내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로 관광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업소용 냉방기기 설치 확대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유럽 및 일본 브랜드가 스페인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 구가 한국 대기업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냉방기기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임		
진출방안	스페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안해,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제품 론칭 현지 냉방기기 설치 전문 업체 등을 통해 스페인 시장 진출 가능		

품목명 3	장류		
HS Code	2103.90	수입액('21/US\$백만)	174.5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2
선정사유	최근 한국 장류(고추장 등)를 가미한 스페인 퓨전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이 늘어나는 등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시장동향	한류 영향으로 한식당을 찾거나 집에서 직접 한식을 요리하는 현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 그간 스페인 주요 식품 수입기업들은 한국 식자재를 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을 통해 수입했으나, 최근 들어 한국서 직접 수입하려는 수요 확대		
경쟁동향	한국 및 아시아 제품은 주로 한인중국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진출방안	아시아산 식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유통상 공략 스페인 식품가공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		
------	---	--	--

품목명 4	리튬이온 배터리		
HS Code	8507.60	수입액('21/US\$백만)	1,486.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15.7
선정사유	정부 주도 하에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제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친환경 사업 확대 유럽산과 비교해 한국산 제품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 우수		
시장동향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시티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적극 지원 중 다수의 완성차 제조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전기차 생산 착수		
경쟁동향	독일 및 이태리산 배터리가 주로 판매되며, 최근 중국 저가제품 판매 확대 추세		
진출방안	스페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현지 공공입찰 참여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또는 전기차 제조기업의 공식벤더로 등록		

품목명 5	전자자전거		
HS Code	8711.60.90	수입액('21/US\$백만)	147.1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5
선정사유	스페인 정부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 기반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21년 스페인 내 전자자전거 판매 전년대비 5.1% 증가		
경쟁동향	일반소비자용 전자자전거는 주로 유럽 또는 북미 브랜드가 주도하며, 모빌리티 셰어링용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 중인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한국 브랜드의 스페인 시장 진출은 미미한 편		
진출방안	현지 전자자전거 유통 전문점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 스페인 및 유럽 스마트시티 관련 박람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원격근무 솔루션
선정사유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기술 발전으로 사무실 밖에서도 원격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스페인 정부는 '20년 9월 원격근무법을 발표해, 코로나19 후에도 원격근무 방식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팬데믹 상황이 대체적으로 안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초 기준 전체 스페인 노동자 중 13.6%가 여전히 원격근무 중임 특히, 금융/IT/통신 등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원격근무 방식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경쟁동향	구글(G-Suite), 마이크로소프트(Team), 시스코(Webex), Zoom Video Communications 등 미국 대기업들이 스페인 원격솔루션 시장 장악 스페인 내 한국 기업의 원격근무 솔루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진출방안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스페인어로 제작해,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원격근무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화상상담 및 클라우드 서비스, 파일공유 부문에서 기존 경쟁사와 차별성을 두어야 함

품목명 2	비디오게임
선정사유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e-sports 시장 형성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게임시장 성장 전망
시장동향	스페인 비디오게임 시장규모는 '21년 기준 18억 유로로 전년대비 2.8% 성장
경쟁동향	EA, Sony, Nintendo 등 미국일본기업 시장 장악
진출방안	Barcelona Games World 등 현지 전문 박람회 참가

품목명 3	애니메이션
선정사유	스페인 제작사와 한국 스튜디오 간의 협력 사례 다수
시장동향	스페인 애니메이션 산업 연간매출 약 3억 유로 스페인 제작사, 유럽 및 중남미 지역 등에 넓은 유통망 보유
경쟁동향	TVE, TV3 등 현지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진출방안	각종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제작투자사와의 협력방안 강구

품목명 4	가상 피팅 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자리잡으며 패션기업들의 가상 피팅 서비스 수요 확대 예상
시장동향	Zara 등 일부 대형 패션기업들은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산업 전반에 걸쳐 보편화 되지 않음
경쟁동향	북미/유럽/아시아의 여러 기업이 가상 피팅 기술을 개발했으나, 아직 동 서비스 시장 규모는 미미한 편임
진출방안	Inditex, Mango 등 현지 대형 패션 리테일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가상 피팅 서비스 론칭

품목명 5	모빌리티 셰어링
선정사유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전기자동차/스쿠터/킥보드 등) 확대
시장동향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20여 개의 기업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 중
경쟁동향	Emov, Zity, Share Now 등 유럽/미국계 기업이 스페인 시장에 진출 기아자동차는 스페인 정유기업인 Repsol과 함께 Wible이라는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중
진출방안	스페인 내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도시 또는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 서비스 론칭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 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0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 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양측 체결 합의(2019. 6.28)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1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직전협상: 2019. 4.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 4. 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2000.10. 1.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완료, 직전 협상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협상 2021.1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중, 직전협상 2022.2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중, 직전 협상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즈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즈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현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현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대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도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업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업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포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

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증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

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 포함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2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2011%20Jan%202022%20.pdf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스페인행 화물은 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의 3개 항구에 도착한다. 해당 무역항은 각각 북부(바르셀로나), 중부(발렌시아), 남부(알헤시라스)에 위치하고 있어, 바이어들은 최종 목적지에 따라 도착항을 결정한다. 각 무역항에 도착한 화물은 대부분 육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1년 기준 스페인 내 총 28개의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대 규모는 스페인 최남단에 위치한 알헤시라스 항구로 연간 물동량이 1.1억 톤에 달한다. 그 뒤를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 무역항이 따르고 있으며, 같은 해 물동량은 각각 8천만 톤, 7천만 톤을 기록하였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스페인의 주요 국제공항은 주로 대도시 또는 유명 관광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마드리드-바라하스 공항(MAD)과 바르셀로나-엘프랏(BCN) 공항이다.
- 주요 공항 물동량: 물동량이 가장 큰 공항은 마드리드-바라하스 공항으로 2021년 52만 톤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스페인 주요 물류거점인 사라고사 공항(19만 톤)과 바르셀로나-엘프랏 공항(14만 톤)이 따르고 있다.

3) 육상 운송 및 물동량

- 내륙 운송 방식: 2020년 기준 스페인 전체 내륙 운송 중 육상 운송(대형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로 다른 운송 방식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스페인 내 육상 운송을 통한 물동량은 총 15억 톤으로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 비중은 각각 92.8%, 7.2%로 나뉘어진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개항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뜻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출 제품은 세관의 수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 통관절차는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칭한다.

일반적인 경우, 스페인에서의 통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물품도착전) 적하목록 사전제출:ENS(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착신고서)
 - 수출 화물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최초 도착항 관할 세관에 ENS 제출
- 보세구역 물품 반입
- 도착 보고

-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하역 및 검사

-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 수입신고

- 수입신고인: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

- 수입신고처리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

-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2) 일반 통관 절차

스페인으로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운송업체를 이용해 현지 도착 시 통관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Packing List, B/L, C/I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품목별 현지에서 요구되는 제품 수출 인증서를 준비해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공식 관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해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전시 물품 통관

스페인은 한국과 같이 ATA 협약국으로, 스페인 내 전시회용 샘플 임시통관 시 "ATA 카르네"를 사용해 부가적인 통관서류나 관세, 부가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임시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단, ATA 카르네는 현지 전시회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회 기간 중 바이어 또는 일반인에게 배포 또는 판매될 제품의 경우에는 ATA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액물품 통관

스페인 현행법상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 내용물의 값어치가 22유로 이하일 경우 해당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용물의 값이 150유로를 넘어서는 우편물에는 21%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그 밖에, 세관 검사에 걸린 우편물에 대해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관세 또는 부가세 청구 대상 우편물은 내용물의 값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경우에는 CIF 가격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5)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샘플의 경우 인보이스에 반드시 샘플이라고 적고 가격(Value)에는 45유로 미만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카탈로그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카탈로그라고 작성 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류는 제품 송부 시 반드시 수입자에게 미리 전달해주어야 한다.

최근 재정적자로 세수가 줄면서 스페인 세관의 통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종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일반 우편(EMS)발송을 통한 샘플 및 카탈로그 등도 세관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상업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부피가 클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를 첨부해 보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다. 세관 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통관, 관련 경비 납부의 순서로 통관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용품에 대한 수입 통관 관리가 강화되어, 건에 따라 통관 작업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현지 당국에서 요구하는 통관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며 현지 관세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TIBA INTERNACIONAL S.A.

주소	C/ Jose Aguirre 40, planta 7; 46011, Valencia, Spain
전화번호	+34 963 984 111
이메일	mad-web@tibagroup.com
홈페이지	https://www.tibagroup.com/es/
비고	다국적기업으로 국제물류운송 및 통관 전문

◦ LOGWIN AIR and OCEAN SPAIN SL

주소	Av Sur del Aeropuerto de Barajas, 28, 28042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7 48 14 81
이메일	spain@logwin-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www.logwin-logistics.com
비고	다국적기업으로 국제물류운송 서비스 전문

◦ NADAL FORWARDING, S.L.

주소	Carrer 113, 4-8 - Pol Pratenc - 08820 EL PRAT DE LLOBREGAT -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6 00 02 00
이메일	recepcion@tvs-asianics.com

홈페이지	http://www.es.nadal-forwarding.com
비고	포워딩 전문 스페인 기업

◦ Taan Comerc, S.L.

주소	Zona Aeroport , s/n Terminal de Carga 08820, El Prat de Llobregat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 298 44 36
이메일	taancomerc@taancomerc.com
홈페이지	https://www.taancomercsl.com/es/
비고	포워딩 및 통관 전문 업체

◦ Pantos Logistics Spain S.L

주소	Calle Miguel Yuste, 29, 28037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 375 90 36
이메일	felipe.colomer@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비고	한국계 포워딩 업체.

◦ Noatum Logistics

주소	Paseo Zona Franca 111 Torre Auditori, Barcelona, 08038,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2 982 255
이메일	grupomarmedsa@marmedsa.com
홈페이지	https://www.noatumlogistics.com/
비고	스페인 계 로지스틱, 포워딩, 통관 전문 기업

◦ Agility Spain SL

주소	Calle de Rumania 7, Coslada, 28821,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3 432 100
이메일	spain@agilitylogistic.com
홈페이지	https://www.agility.com/en/homepage/
비고	네덜란드계 로지스틱, 포워딩, 통관 전문 기업

◦ Cotransa

주소	Calle de Mendez & Alvaro, 84, 28053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7 460 680
이메일	cotransa@cotransa.com
홈페이지	https://www.cotransa.com/
비고	스페인계 포워딩, 통관, 로지스틱 전문 기업

◦ Discovery Forwarder

주소	Av. De la Industria 52 (Edif. Estellez) Ofic. 1 Nave A, 28823 Coslada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 485 14 01
이메일	info@discoveryfwd.com
홈페이지	https://discoveryfwd.com/
비고	마드리드 소재 포워딩, 통관, 물류 전문 기업

<자료원 : 기업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스페인 기업 및 상업법

스페인의 기업 및 상업법은 2010년 7월 2일 개정된 자본기업 법률 1/2010을 기본으로 한다. 스페인은 동 법률에 의해 법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을 구분하며, 동 법률과 함께 상업법의 핵심을 차지하는 칙령들은 아래와 같다.

① 1784/1996 칙령

② 기업설립, 인수합병, 스피오프, 자산/부채 국제양도, 기업 국제이전, 국제송금 등 상업적 기업들의 구조적 수정에 관한 칙령인 3/2009,

③ 1885년 8월 22일의 상업법에 관한 칙령

④ 상업 서비스 기업에 관한 2/2007

2) 투자정책 기본방향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우선으로 유치해 지역 간의 균등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스페인 투자가 사이의 형평성 유지 및 시장자유주의 구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외국인 투자경로를 다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페인은 1999년 법령 Royal Decree 664/1999를 제정해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보고의 종류로는 사전보고, 사후보고 그리고 연간보고가 있다. 투자보고는 스페인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한다.

○ 보고 의무를 지는 경우

- 스페인 비거주인 외국 투자자의 초기투자의 경우
- 유가증권 투자: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하는 금융기관 혹은 투자기관의 경우
- 유가증권 외 투자: 단체에 등록된 기업 중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 상기의 경우 투자 금액은 자금관리 회사에 의해 신고돼야 한다.

스페인 내 투자 관련 법규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관련 법령인 Royal Decree 664/1999와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Royal Decree 1816/1991 및 기타 후속 수정령 42/1993, 1638/1996이 있다. 한국과는 1994년 1월 17일 투자 진흥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4년 7월 19일부터 발효 중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주요 사항

○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 스페인 외국인 투자 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체는 해외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다.

- 비거주자: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소가 해외인 자
- 해외소재 법인: 등기상의 주소가 외국인 법인
- 해외 공공기관
- 외국인 투자지분이 높은 스페인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 외국인 투자의 형태: 외국인 투자자가 다음의 활동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스페인 기업의 지분 매입 시
- 스페인 내 지사 설립 혹은 확장 시
- 스페인 거주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 등을 매입할 시
- 스페인 금융감독당국(CNMV)에 가입된 투자펀드에 참여 시
- 스페인 내 부동산을 3,005,060유로 이상 매입 시(조세 피난처로부터의 투자는 금액 무관)
- 스페인 내에서 3,005,060유로 규모 이상의 JV, 재단, 회사 등 설립 혹은 참여 시

○ 외국인 투자 신고: 스페인의 외국인 투자는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조세 피난처 지역에서 유입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 신고를 거쳐야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조세 피난처로부터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3,005,060유로 이하의 부동산 취득
- 재단 설립
- 협동조합 창립

○ 외국인 투자의 제한

-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

- 스페인 정부는 국내 및 유럽연합 역내 기업 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영리회사 구조 변경법을 개정해 인수 관련 각종 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인수 단계에서 무한회사, 합자회사 외 기타 형태의 회사에 한해 당국에 기업인 수 기획안, 감사 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면제됨(무한회사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인수 협상이 완료됐을 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현 주식회사/유한회사법상으로는 자사 또는 동일 그룹 내 계열사의 지분을 제3자가 매입하도록 돕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대출, 보증 등)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LBO(차입매수, Leveraged Buy Out)가 불가하다.
- 상기 법령을 통해 외부 감사기관이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당국이 심사하는 조건에 한해 금융 지원을 통한 LBO가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동 법안에 따라 스페인 기업 또는 EU 역내 기업 간의 인수는 해당 대상국의 법령을 반영해 상황에 맞게 처리되고 있다.

○ 규제 완화법 중단

- 스페인 각료이사회는 일부 경우 규제 완화법의 적용을 막을 수 있고, 각료이사회로부터의 행정상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절차를 받기 위해 투자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각료이사회는 무기의 수입 및 판매, 탄약, 폭발물 및 기타 무기와 같은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활동 시기에 스페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제 완화법만 정지 처분시킨다.

○ 외국인투자의 감독

-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는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자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무역투자국은 각각의 특정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의 감독 기관

-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연락처(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 홈페이지: <https://www.mincotur.gob.es/en-us/Paginas/index.aspx>

- 전화번호: +34 913 494 640

- 이메일: registroen@mincotur.es

- 이 외, 스페인 투자 유치 업무를 맡은 기관은 스페인 무역 투자 진흥청인 ICEX가 있는데 해당 기관은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써 2013년 스페인 투자 유치청(Invest in Spain)과 통합하여 무역진흥과 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고 전액 정부 출자 산하기관으로써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장관이 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약 80개국에 스페인 대사관 소속 무역사무소 형태로 126개의 공관을 운영 중이며 서울 사무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홈페이지: ICEX: <https://www.icex.es/icex/es/navegacion-principal/todos-nuestros-servicios/informacion-de-mercados/paises/navegacion-superior/nuestras-oficinas/ofecomesseul.html?idPais=KR>

- 이메일: seul@comercio.mineco.es

- 전화번호: 02-3703-6600

투자인센티브

1) 개요

스페인은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하향산업 진흥, 지역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별 없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스페인 내 위치한 모든 기업은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단, EU 집행위는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경제규모, 인구수 등에 따라 최대 투자 지원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EU 평균 대비 개인당 GDP,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지원 인센티브 규모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높은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0년 이후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외국 기업의 대스페인 투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2)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스페인은 관련법령(스페인 법령 395/2007)에 따라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은 사회보장세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신청기업에서 전년 사회보장세에 인재육성 명목으로 납부한 액수를 감안해 산정된다. 또한,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교육, 훈련 보조금

- 직원교육장려금: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감면

- 6~9명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100% 감면

- 10~49명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75% 감면

- 50~249명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60% 감면

- 250명 이상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50% 감면

- 정규직 고용지원(신생기업대상): 25세 미만 또는 30세 미만의 장애인 고용 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인하(상근직의 경우 최대 1,800유로)

- 정규직 고용지원(일반기업대상): 공식 실업자 채용 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인하(최대 1,000~1,500유로)

- R&D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 산업기술센터(CDTI): 기업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 최소 투자액 175,000유로 기업에 한해 다양한 보조금과 낮은 이자율의 대출

- MINETAD(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기술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최소 20만 유로, 최대 100만 유로 저금리 대출지원

- ICEX(스페인 무역투자진흥기관):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기업에게 최대 20만 유로를 지원해주며 “Rising Up in Spain” 프로그램에 선정된 해외 스타트업에게는 무료 사무공간, 비자 수속, 사업 보조금 1만 유로 제공,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
- ICO(스페인 경제산업부 산하 신용 연구소, Instituto de Credito Oficial): 에너지, 환경, 교통 및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매출 5백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 FEDER(EU 기금): R&D 기술 프로젝트 관련 스페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 약 200만 유로 보조금 지원
- ENISA(스페인 혁신촉진공기업): 최대 150만 유로까지 참여대출 형식으로 중소기업 지원(낮은 이자, 무보증)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 스페인 무역투자청(ICEX)을 통해 Rising Startup Spain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 지원 대상: 외국 스타트업
- 선정 기준
 - 외국에서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해당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는 스타트업
- 선정 절차
 - ICEX(스페인무역투자청)는 매년 해외 무역관을 통해 스페인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스타트업 모집 → 내부 심사를 통해 매년 15개의 스타트업 선정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6개월 간 코워킹(co-working) 사무공간 무료 제공
 - 노동허가비자 및 거주증 신청 및 발급 지원(fast-track)
 - 사업 보조금 1만 유로 제공
 - 스페인 시장진출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 소셜미디어 홍보 지원
- 투자진출 지원 방법
 - Barcelona Activa(바르셀로나 시청 창업지원센터), Madrid International Lab(마드리드 시청 혁신&해외진출센터), Wayra(텔레포 니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제한 및 금지(업종)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제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와 실험적 혹은 과학적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2020년 3월 14일 '국가경계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통해 EU 투자자들의 스페인 전략기업에 대한 혈값 인수 방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법안을 수정했다. 동 법안 수정으로 유럽연합(EU)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스페인 주요 전략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행위가 공공 안전·질서·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단, 중단 범위는

특정 기업의 자본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투자로 인해 스페인 기업의 운영통제권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한다. 또한, EU 역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국부펀드의 투자 행위가 위와 같은 자본참여 비중 초과 또는 운영통제권 양도 범주에 해당될 시에도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페인에는 총 5개의 자유무역지역(바르셀로나, 비고, 까디스, 라스팔마스 제도, 세비아)이 위치하고 있다. 타 국가와 같이,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 중이다.

한편, 까나리아 제도는 자유무역지역(FTZ)와 특별경제구역(ZEC, Zona Especial Canaria)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동 지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조건(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등)을 충족할 경우 관세, 부가세 면제뿐만 아니라 ZEC 지정기업 특별 법인세율(1~5%)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 까나리아스(Canarias) 제도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규모	250,000㎡
위치	Andres perdomo, s/n, 35008 Las Palmas de Gran Canaria
임차료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35,000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까나리아스(Canarias) 제도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사무소 - 연락처: (34)928-327-316 - 홈페이지: www.zonafranca.org - 이메일: info@zonafranca.org
비고	○ 특별경제구역(ZEC) 지정 기업으로 선정 시, 특별 법인세율(4%) 적용 ○ 까나리아스 내에서 제조산업에 종사할 시, 일반 법인세(25%)의 절반까지 감액. 회사설립 및 자본 확대, 자본재 투자 관련 세금 면제 가능

○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규모	144,352㎡
위치	Area Portuaria de Bouzas, s/n, 36208 Vigo, Pontevedra
임차료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35,000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사무소 - 전화: (34)986-269-700 - 홈페이지: http://www.zfv.es/portal/index.html - 이메일: comunicacion@zonafrancavigo.com
비고	○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Centro de Iniciativa Empresarial)을 운영 중이며,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 ○ 수혜대상: 창립 1년 미만 신생기업, 실현 가능한 영업 프로젝트 제시 가능 기업, 소매업 종사 기업 제외,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사 제외

○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규모	515,000㎡
위치	S/N, Av. Ronda de Vigilancia, 11011 Cadiz
임차료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38,000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사무소 - 전화: (34)901-227-227 - 홈페이지: www.zonafrancacadiz.com - 이메일: 홈페이지 통해 문의(http://www.zonafrancacadiz.com/inicio/contacto/)
비고	○ 장기 임대 및 대형부지 임대, 수출입 종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5~20% 임대료 할인 ○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 가능 물건 및 가격 조회 가능

○ 바르셀로나(Barcelona) 자유무역지대

규모	6,000,000㎡
위치	Avinguda Parc Logistic, 2-10 BAJO; SALA COMUNICACIONES, Barcelona
임차료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40,000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바르셀로나(Barcelona) 자유무역지대 사무소 - 전화: (34)932-638-111 - 홈페이지: https://zfbbarcelona.es - 이메일: czfb@zfbbarcelona.es
비고	○ 산업단지, 특별관세지역, 물류단지로 나뉘어져 있음. ○ 주요 입주기업: Bayer Materialscience, CEPSA, Nissan Motor Iberica, Renault Trucks Commerical Espana, Saint Gobain Cristaleria, SEAT 등

○ 세비야(Sevilla) 자유무역지역

규모	771,133㎡
위치	Plaza de Espana, Sector 3, 3A Planta, 41013, Sevilla, Spain
임차료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약 30,000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세비야 자유무역지역 사무소 * 홈페이지: https://sevillazonafranca.com/ * 전화번호: +34 600 958 509 * 이메일: delegadoestado@zonafrancasevilla.eu
비고	* 2017년 10월부터 자유무역지대로써 활동 시작 * 철도, 도로, 항구와의 거리가 가까운 장점 보유 * 주요 입주기업: Astilleros del Guadalquivir, Cen Solutions, Trace, Primosa 등 약 20개사

<자료원 :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마드리드

1) 기본정보

- 인구('21년 7월, 천 명): 6,736
- 외국인 수('21년 7월, 천 명): 863
- GDP('20년, 백만 유로): 216,527
- 1인당 GDP('20년, 유로): 32,048
- 수출('21년, 백만유로): 39,866
- 수입('21년, 백만유로): 81,568
- 외국인 투자('93~'21년 누적, 백만유로): 323,430

2) 투자 유망산업: 신재생 에너지, 건축, 유통, 통신

3) 투자 지원 분야: 기업 대상 인센티브와 저금리 은행 대출 (기업 R&D, 고정자산투자, 고용창출, 직업훈련,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4) 투자유치 전담기관

- 기관명: 마드리드 시청 경제부
- 주소: Calle Alcalá, 45, 28014, Madrid, Spain
- 전화: (34)915-881-000
- 이메일: ag.economiayhacienda@madrid.es
- 홈페이지: 없음
- 비고: 과거 마드리드 투자 진흥청(Invest in Madrid)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는 마드리드 시청 경제부에서 투자유치 업무 총괄

○ 카탈루냐

1) 기본정보

- 인구수('21년 7월, 천 명): 7,660
- 외국인 수('21년 7월, 천 명): 1,112
- GDP('20년, 백만 유로): 212,931
- 1인당 GDP('20년, 유로): 27,812
- 수출('21년, 백만유로): 80,538
- 수입('21년, 백만유로): 90,428
- 외국인 투자('93~'21년 누적, 백만유로): 83,746

2) 투자 유망 산업: IT 및 전자 장비, 바이오 약품, 식음료, 항공, 건축

3) 투자 지원 분야: 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 및 저금리 대출(기업 R&D, 고정자산투자, 고용창출, 직업훈련,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4) 투자유치 전담기관

- 기관명: 까탈루냐 해외진흥청(ACCIO)
- 주소: Pg. de Gràcia 129, 08008 Barcelona, Spain
- 전화: (34)934-767-200
- 팩스: (34)934-767-300
- 홈페이지: www.accio.gencat.cat
- 이메일: info.accio@gencat.cat

○ 발렌시아

1) 기본정보

- 인구수('21년 7월, 천 명): 5,051
- 외국인 수('21년 7월, 천 명): 748
- GDP('20년, 백만 유로): 104,724
- 1인당 GDP('20년, 유로): 20,792
- 수출('21년, 백만유로): 32,413

- 수입('21년, 백만유로): 29,846
- 외국인 투자('93~'21년 누적, 백만유로): 15,226

2) 투자 유망 산업: 유통, 물류, 제조

3) 투자 지원 분야: 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 및 저금리 대출 (기업 R&D, 고용창출, 직업훈련,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4) 투자유치 전담기관

- 기관명: 발렌시아 비즈니스 경쟁력 연구소(IVACE: Institut Valencia de Competitivitat Empresarial)
- 주소: Torre 2, Ciudad Administrativa Nou de Octubre, Carrer de Castan Tobenas, 77, 46018 Valencia
- 전화: (34)961-209-600
- 팩스: (34)961-247-999
- 홈페이지: www.ivace.es
- 이메일 : info.ivace@gva.es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41966.3	53494.9	8514.73	8928.41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56045.5	37733.9	19671.4	21422.1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41	10	409,555	39	322,866
2020	25	4	310,042	30	253,340
2021	24	4	121,127	34	103,32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1	5,003	3	2,99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1	37,242	3	38,242
건설업	5	0	177,410	7	177,410
도매 및 소매업	8	3	5,772	8	5,737
숙박 및 음식점업	10	0	331	10	331
정보통신업	4	1	562	4	562
부동산업	6	2	183,196	2	97,5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36	1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1	3	1	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3,853	0	0
제조업	4	1	1,222	3	1,0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0	14,748	2	12,319
건설업	4	0	92,139	3	92,117
도매 및 소매업	1	0	178	2	183
정보통신업	6	2	9,209	8	6,927
금융 및 보험업	1	0	180	0	0
부동산업	4	1	187,280	2	140,2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0	1,233	10	55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0	4,584	5	2,920
건설업	2	0	29,081	2	29,087
도매 및 소매업	7	1	3,744	6	3,727
운수 및 창고업	3	1	2,295	3	2,300
정보통신업	4	1	30,184	6	20,473
부동산업	2	1	50,514	1	44,2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4	0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711	11	56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마크로젠(Macrogen Spain)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유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
모기업명	마크로젠

○ 인두스트리아스 골(Industrias Gol S.A)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차량용 볼트, 너트
모기업명	글로벌에스엠

○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Hankook Espana S.A.)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고무, 플라스틱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엔컴퍼니

○ 현대자동차스페인판매법인(Hyundai Motor Espana S.L.U)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완성차 판매 및 서비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모비스㈜(Mobis Parts Europe N. V. (Spain Branch))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자동차 A/S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한국선급(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선급 검사
모기업명	한국선급(사)

○ LX판토스(Pantos Logistics Spain S.L)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운송
모기업명	LG상사

○ 포스코 인터내셔널(Posco International)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등 종합
모기업명	포스코

○ 제일기획(Cheil Spain)

진출연도	2006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프로모션
모기업명	삼성그룹

◦ 이노션(Innocean Worldwide Spain S.L.)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취급분야	광고업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세라젬의료기(株)(Ceragem Mundo S.L.U)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료침대
모기업명	세라젬(株)

◦ 삼성전자(株)(Samsung Electronics Iberia S.A., Sociedad)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휴대폰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물산(株)마드리드사무소(Samsung Spain Office)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해운부대업무

모기업명	삼성그룹
------	------

◦ 대한항공㈜(Korean Air)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마드리드-인천 현재 주 3회 직항 비행기 운항 (화/목/토 운항) *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 변경/취소 가능
모기업명	한진칼

◦ 기아자동차㈜(Kia Motors Iberia S.L.)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금호타이어㈜(Kumho Tire France Sucursal Espana)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더블스타

◦ SK이노베이션㈜(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취급분야	윤활기유(LBO)
모기업명	SK

◦ LG전자㈜이베리아법인(LG Electronics Iberia, S.A.U)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전기, 전자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그룹

◦ GS건설㈜(GS Inima)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
모기업명	GS그룹

◦ 효성㈜스페인지사(Hyosung Corporation Bcn Branch)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피혁, 화학의약,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금속, 기계장비
모기업명	효성

◦ 위니아전자㈜스페인법인(Winia Electronics Iberia SA)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제품
모기업명	대우위니아그룹

◦ 케이디케이동국오토모티브스페인(Kdk-Dongkook Automotive Sapin, S.A.)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내장,외장 플라스틱 부품을 사출, 도장, 조립하여 납품
모기업명	동국실업(주)

◦ TTIA터미널(TTIA-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취급분야	항만 운영
모기업명	HMM

◦ 미원홀딩스(Miwon Spain)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잉크, 도료
취급분야	나무, 메탈, 플라스틱용 도료, 캐미컬
모기업명	대상그룹

◦ 나노(Nano Automotive SL)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부품(베어링, 자동차 기어 변속장치)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나노

◦ 아시아나 항공(Asiana Airlines)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사
업종	항공운수업
취급분야	바르셀로나-인천 직항 비행기 운항중 *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 변경/취소 가능

모기업명	금호아시아나
------	--------

○ 한화에너지(Hanwha Energy)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법인
업종	에너지
취급분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에너지 판매
모기업명	한화그룹

〈자료원 : 마드리드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스페인의 기업 및 상업법은 2010년 7월 2일 개정된 자본기업 법률 1/2010을 기본으로 한다. 스페인은 동 법률에 의해 법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을 구분하며, 동 법률과 함께 상업법의 핵심을 차지하는 칙령들은 아래와 같다.

- ① 1784/1996 칙령
- ② 기업설립, 인수합병, 스핀오프, 자산/부채 국제양도, 기업 국제이전, 국제송금 등 상업적 기업들의 구조적 수정에 관한 칙령인 3/2009
- ③ 1885년 8월 22일의 상업법에 관한 칙령
- ④ 상업 서비스 기업에 관한 2/2007 칙령

투자진출형태로는 신규 사무소 개설, 현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진출 등이 있을 수 있다.

○ 현지법인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1인 투자회사가 법인에 속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L.)이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Sociedad Annima)는 60,000유로, 유한회사(Sociedad Limitada)는 3,000유로, 신규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Nueva Empresa)는 3,000유로이다.

법적으로 본사와 다른 독립적인 기업이며 법인격을 가지며 운영도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 및 세무 등에 있어서 스페인 국내법이 적용된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할 시에는, 유럽주식회사(Sociedad Anonima Europea, SE)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통해 유럽지역 내 영업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유럽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 최소 자본금은 120,00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설립 절차 과정은 약 1달이 소요된다.

현지 법인 대표자 위임 → 상업 등기소에 상호명 인증 확인 →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공증인에 의한 법인 개설 증서 공여 → 임시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NIF) → 세금 정산 → 상업 등기소 등록 → 정식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 → 설립 완료

지사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자본금 납입 규정에 관해 주식회사와 같이 현금납입은 유로로 하며 현물납입은 독립적인 기관의 측정가를 필요로 한다. 본사를 대표해 스페인에서의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 본사에 의존하는 성격이 짙고 법적으로 독립돼 있지도 않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설립 절차 과정은 약 6~8주가 소요된다.

상호명 신청 →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NIF) 및 스페인 국세청에 의한(ante) 모회사 대표 임명(nombramiento de representante de la sociedad matriz ante Administracion tributaria espanola) →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akta de manifestaciones de

titularidad real) → 공증인에 의한 지사 개업 증서 공여(otorgamiento de escritura publica de apertura de sucursal ante notario espanol) → 상업 등기소 등록(Solicitud de inscripcion en el registro mercantil) → 국세 조사(Tramites censales)

또한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현지 지사 대표자 위임장(공증 필요), 임시 사업자 등록 번호 (NIF), 상호명 인증 증명서, 세금 정산 증명서, 외국인 투자 신고서

연락사무소

법적으로 본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으로 스페인 내 직접적인 판매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마케팅 및 판촉 등의 부수적인 영업행위만 허용된다. 또한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연락사무소 설립 형태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연락사무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의 경쟁 수준 연구 등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연락 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공증 필요), 연락 사무소 설치 신고 위임장, 본점 대표자 여권사본, 연락 사무소 대표자 여권 사본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 스페인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관광업 호황과 수출 진작 등에 힘입어 EU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에도 경제 성장이 크게 후퇴했으나, 2021년부터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 스페인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어, 현지 투자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페인의 FDI 신뢰지수는 3.0점 만점에 1.906점으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8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한 계단 오른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스페인 내 사업 환경: 스페인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반 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사업환경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조사 스페인은 2020년 전 세계 190개 국가 중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간 거래'나 '지급불능 관련 문제 해결' 부문에서는 각각 1위, 18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편리함' 부문에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평균 7회 수행)와 더딘 공공행정(평균 12.5일) 등으로 97위로 낮은 성적을 거두었다. - 현지 직원 채용 시: 스페인 노동법은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간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노동자 측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직 채용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되며, 이 후 재계약 시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현지 노동환경 및 관행 이해: 스페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름 시즌(6~9월) 중 노사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단축근무제(점심식사 시간 없이 매일 6~7시간 연속 근무)를 운영 중임으로, 이를 사전에 숙지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분쟁해결 2020년부터 스페인 내 마드리드국제중재센터(Madri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MIAC)가 운영되고 있다. 동 기관은 분쟁 당사자 양 측이 협정을 통해 마드리드국제중재센터를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지정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 내 설립된 모든 외국계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 사업과 관련된 분쟁 시 해당 현지 법원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마드리드국제중재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https://madridarb.com/ - 주소: Calle de las Huertas, 13 28012 Madrid, Spain - 전화: +34 91 538 35 48 - 이메일: info@madridarb.com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서,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해 출자자, 즉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60,000유로이며 설립 당시 각 액면 주식당 25%를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납입 시 현금의 경우 유로로 납입해야 하며, 현물의 경우 제3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측정가가 요구된다. 나머지 자본금은 현금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현물인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발기인(초기 투자자) 수에 대한 최소 규정은 없으나, 이사진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제한된다. 주식양도가 자유로우며, 상장에 관한 규정은 업종이나 투자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는 '스페인 신분증 번호'를 소지한 대표자나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우선 외국인등록번호(NIE)를 획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설립 절차 과정은 약 6~8주가 소요된다. 상호명 신청 → 회사 창립 동의(투자자들) →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NIF) → 계좌 설립 → 초기 자본 예금 인증서 발급 →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 상업 등기소 등록 → 사업자 등록번호 획득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들에게 회사 정관 개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제공함으로써 유연성을 얻는 것이다. 법정 최소자본금은 3,000유로 이상이며 설립 당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증자할 경우 이를 공증해야 하며, 자본금을 현물로 납입 시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제3자의 독립기관의 측정 보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사진은 최소 3명, 최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분 양도 또한 제한되어 있다. 관련 규정은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유한회사는 절차가 훨씬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영업활동 이행하며 일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유한책임 기업가(ERL, Emprendedor de responsabilidad limitada)로서의 사업활동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ERL로 활동하기 위해선 스페인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는 창업지원창구(PAE)에서 전자 통합신청서(DUE)를 작성해 제출하여, 스페인 중앙상업등기소에 ERL로 등록되어야 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 합명회사(Sociedad Regular Colectiva, S.R.C)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직접 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해 각 사원이 업무 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 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 성질을 지닌다.

◦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Com)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조직되는 기업의 형태인데, 합명회사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경영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담당하며,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받는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같이 60,102유로이다.

기타

◦ 유럽주식회사(Sociedad Anonima Europea, S.E)

일반 주식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각 나라마다 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이 유럽연합 법률만을 적용하는 통일된 관리 시스템의 기업이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12만 유로이며 주식 관련 규정은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 신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Nueva Empresa, S.L.N.E)

유한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설립 자격 요건을 최소화하여 유연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1인 투자회사(Sociedad de Accionista Unico, o Socio Unico)

1인 투자가만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를 가리키며, 그 특성이 주식회사일 경우 Sociedad de Accionista Unico, 유한회사일 경우 Socio Unico라 한다. 1인 투자회사 형태는 관련된 특별규정에 따라 등록/운영되며, 회계/세무적인 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 전문회사(Sociedad Profesional)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로, Sociedad Anonima Profesional 또는 S.A.P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에 속해있는 멤버들은 대학 과정 또는 그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활동을 해야 하며, 기업의 자본금 구성에 참여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등록할 수 없는 단체 및 법인: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DELOITTE

전화번호	(34)915-145-000
주소	Plaza de Pablo Ruiz Picasso 1, Torre Picasso 28020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www.deloitte.es/
이메일	adminfinanciera@deloitte.e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세계 4대 회계법인(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 언스트 앤 영, KPMG, Deloitte) 중 하나로 미국계 대형 회계법인이다. 딜로이트는 150개국에서 회계감사, 세금자문, 경영 및 금융자문, ERM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PRICEWATERHOUSE COOPERS

전화번호	(34)902-021-111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259 B. Edificio Torre PwC
홈페이지	http://www.pwc.es/
이메일	comunicacion@es.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영국 런던에 있는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이다. 대한민국의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다.

○ ERNST AND YOUNG (EY)

전화번호	(34)915-727-200
주소	Plaza Pablo Ruiz Picasso, 1 Torre Picasso 28020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www.ey.com/
이메일	recursos.humanos@es.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KPMG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을 이루는 대형 회계법인이다. 전 세계 150개국에 걸쳐 20만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리딩 회계 · 컨설팅 회사이다. 법인 본사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다.
----	---

◦ KPMG

전화번호	(34)914-563-400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259C Planta 48 28046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es/es/home.html
이메일	info@kpmg.e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네덜란드계 컨설팅 기업

◦ SALVADOR FERRANDIS AND PARTNERS

전화번호	(34)915-642-300
주소	Calle de Joaquin Coasta, 24, 28002,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www.sfplegal.com/
이메일	info@sfp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스페인 컨설팅 회사로 주로 지적재산권, 상표권, 위조 및 불법 복제, 특허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AMYA ABOGADOS

전화번호	(34)986-210-301
주소	C/ Pintor Laxeiro 11 2ªA, 36211, Vigo (Pontevedra), SPAIN
홈페이지	http://amyavigo.es/es/home/inicio/
이메일	info@amyavigo.e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스페인 북부 비고에 소재하는 컨설팅 회사로 결혼, 운수권, 보험, 선박건조,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CONSULTING F

전화번호	(34)915-360-268
------	-----------------

주소	Avenida del General Peron, 16, Madrid, 28020,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www.consultingf.es/
이메일	info@consultingf.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노동, 회계, 세금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드리드에 소재하는 컨설팅 기업이다.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8:00-21:00

◦ CREMADES AND CALVO - SOTELO

전화번호	(34)914-264-050
주소	Calle Jorge Juan, 30, 28001,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s://www.cremadescalvosotelo.com/
이메일	info@cremadescalvosotelo.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회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개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LegalTeam

전화번호	(34)935-397-731
주소	Gran Via de les Corts Catalanes, 636, Pral 1 A, 08007, Barcelona, Spain
홈페이지	http://legalteam.es/lt/
이메일	secretaria@legalteam.e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투자 진출 컨설팅 및 및 업무 대행)
비고	외국인의 법적 지휘 및 이민권 전문 스페인계 컨설팅 회사다.

◦ IMA LEGAL

전화번호	(34)918-615-076
주소	Calle Velazquez, 119, 1B 28006 Madrid , España
홈페이지	http://www.imalegal.com
이메일	info@ima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 자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이윤교 변호사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이다
----	--

◦ Garriegues

전화번호	(34)915-145-200
주소	Calle Hermocilla 3. Madrid, 28001. Spain
홈페이지	https://www.garrigues.com/es_ES
이메일	info@garrigue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상업, 노동, 회계,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 지적권 에이전트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Uria Menendez

전화번호	(34)915-860-400
주소	Calle Principe de Vergara 187, Plaza de Rodrigo Uria, 28002,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s://www.uria.com/es/index.html
이메일	madrid@uri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 국제 상업 분쟁권 및 회계, 노동,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 법무법인 - 현재 한국의 여러 기업과 협력중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스페인인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 외환 자유화 관련 법령으로는 칙령 1816/1991, 42/1993, 1638/1996 등이 있는데,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규제 조항이 철폐됐다. 스페인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송금 또는 직접적인 결제, 수출입 활동을 위한 대금 지급 등은 제약 없이 가능하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은행 송금, 외환 지급 및 수령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극도로 짧은 기간 내의 핫머니 유·출입이 스페인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의 외환관리의 기본 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역내 별다른 외환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단, 5만 유로 이상의 송금의 경우 금융당국 보고가 원칙). 한편, 송금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상이하며,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시스템을 사용 중인 유럽 국가 간 송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SEPA 해당국 : EU-28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트슈타인, 노르웨이, 모나코, 스위스, 산마리노

외환 규제

1) 외환 규제 개황

일반적인 경우, 해외 거주자와 외환거래 시 스페인 내 거주자는 스페인 중앙은행에 해당 건에 대한 설명과 관련 대상자(중재 은행, 송수신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해외 거주자 계좌에 5만 유로 이상을 송금하거나, 해외 거주자로부터 5만 유로 이상을 수신할 시
- 무역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환 지급 및 수령을 1년 이상 집행 연기 또는 융자하는 경우
- 무역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차 관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 금융 중개 기관이 금융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차 관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 스페인에서 어음을 비거주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금융 용자로 간주돼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금액별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다.

- 스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액 1억 유로 미만의 경우: 연 1회 신고
 - 매년 1월 20일까지 신고 필수
- 스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액 1억 ~ 3억 유로의 경우: 분기별 신고
 - 각 분기가 끝난 후 20일 내 신고 필수
- 스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액 3억 유로 이상의 경우: 월 1회 신고
 - 매월 말에 끝난 후 20일 내 신고 필수

비거주 개인이나 법인도 거주자와 동등하게 스페인 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의 문제도 사회화돼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개설 시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필요서류를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해외 브로커를 통한 주식 투자 신고 의무

스페인 국민 또는 거주자가 해외 브로커를 통해 기업 주식을 매입할 시,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에 전년도 연말 기준 주식 보유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해외 브로커를 통한 주식 투자 신고서를 D-6 양식(Modelo D-6)라고 한다. 해당 신고는 산업통상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신고 프로그램인 Aforix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D-6 신고는 매년 1월 1~31일 사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년도 말일 기준 주식 종목 및 보유량, 가치 등을 작성해 제출한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2022년부터 D-6 신고 의무를 특정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 제한해, 대부분의 소규모 투자자들이 D-6 신고 의무에서 벗어났다.

Aforix 다운로드 프로그램: <https://oficinavirtual.comercio.gob.es/AFORIXUpdater/>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96유로(2022년 5월 13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8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56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7.97
비고	스페인 정부는 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 일 최저 임금: 33.33유로 ○ 월 최저임금: 1000.00유로(1년에 14번 지급) ○ 년 최저임금: 14,000.00유로 ○ 가사 도우미 최저임금: 시간당 7.82유로				

<자료원 : 스페인통계청(INE), www.salariominimo.es>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스페인은 통상적으로 노동부 산하 고용청(INEM), 인력파견회사(ETT), 헤드헌터, 온라인 또는 신문 구인 광고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할 수 있다. 2012년 노동개혁으로 개별 기업의 노사협약이 업종, 지역 등 상위 단체협약을 우선하게 됐으나, 기업 규모가 작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상위 협약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은 노동법은 업종이나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 현지 규정 준수를 위해 가급적 현지 변호사, 노무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고용 계약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고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고용도 금지돼 있다.

스페인 정부는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12월 노동개혁을 시행했다. 2022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동 노동개혁을 통해 스페인 내 노동계약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설정되며, 특수한 사유 시에만 예외적으로 임시직 채용이 허용된다.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예: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필요할 시에는 최대 6개월까지 임시직 채용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상황(예: 여름 바캉스 시즌)으로 인한 임시직 채용은 최대 90일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임시직 계약 만료 시 기업은 노동자에게 12일분 급여를 보상금 형태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임시직 계약을 과도하게 사용 시 스페인 노동당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으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비연속적 정규직(Contrato Fijo Discontinuo)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 동 계약 방식을 통해 기업은 특정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연중 업무량이 늘어나는 시점에만 근무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은 매년 초 노동자 측에 예상 근무 재개 시점 및 기간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이를 정상적으로 통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12개월 이외 상여금을 6월 및 12월에 100%씩 지급함으로써 연간 14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별로 단체 협약에 의해 12개월 지불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다. 단, 이는 14개월 치를 12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액상 차이는 없다. 업종에 따라서는 단체 협약에 의거해 6월과 12월 상여금 지급 외에도 별도의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사가 속해있는 단체 노사협약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 이외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직원 급여와 직종에 따라 달라진다. 2014년 2월 25일부터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매달 100유로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할인은 2년간 적용된다. 그 외의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급여 외 추가로 23.6%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의 4.7%를 직원 자기부담금으로 원천 징수해 매월 납부한다. 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20~47%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후 분기별로 대납한다.

전 산업 일률적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000,00유로이다. 전문 직종들의 최저 임금은 보통 단체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그 밖에, 스페인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원격근무법을 통과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원격근무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게 됐다. 동 원격근무법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격근무 정의: 근로자가 3개월간 매주 업무의 30% 이상을 근로자의 집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수행
- 원격근무법 발효 시점: 해당 법안 발표일부터 20일 뒤인 10월 13일부터 효력 발생. 그러나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첫째, 원격근무와 관련해 노사 간에 이미 조율된 협정이 있을 시 해당 협정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격근무법 적용을 유예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계령' 발동으로 기존에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기존 노동법을 따른다. 그러나 기존 유효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은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용 수단, 기기, 장비, 소모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의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기업은 원격근무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수단·기기,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는 노사 간 서면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 온라인/오프라인 출근 전환 여부: 원격근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원격근무 시행을 위해선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 방식을 원격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각 기업에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업무 방식을 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한다.
- 노사 간 협정: 노사 간 협정은 원격근무 시행 전에 서면으로 작성돼야 한다. 해당 협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원격근무용 물품 목록,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원격근무 관련 지출 목록 세부사항, 근무시간, 온라인/오프라인 출근 비율, 원격근무 장소, 기업의 원격근무 관리 방식, 원격근무 중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 원격근무 시 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업의 지침, 원격근무 협정 효력 기간 등과 같은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 원격근무자 노동조건: 원격근무자는 회사 출퇴근했을 때와 동일한 노동 권리를 갖게 되며 보수 지급이나 고용 안정성, 노동 기간, 진급 등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유연근무제 및 원격근무 관리: 근로자는 원격근무 중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은 근무자의 근무 시작 및 종료, 컴퓨터 작동/종료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원격근무자의 노동 의무 및 권리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 '디지털 로그아웃': 원격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업무를 이어가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디지털 장치 사용 범위: 각 기업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원격근무자가 회사에서 지급한 디지털 장치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기업은 원격근무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격근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개별고용계약에 명시되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최소 주당 하루 반 이상의 휴일이 주어져야 하는데, 유통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토,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금요일에는 점심시간 없는 집중 근무제를 채택해 오후 2~3시경 퇴근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계 단축근무 시행이 보편화해 있어 주로 6월 말 또는 7월부터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는 매일 집중근무제를 채택해 점심시간 없이 근무한 후 오후 2~3시경 퇴근을 하고 있다. 업종별로 교대 근무, 휴일 근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휴일 및 근무 시간에 관한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근무시간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은 자사가 속해있는 단체 노사협약의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휴가

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매년 30일 유급휴가(자연일수 기준)가 의무화돼 있으며, 이외 이사 1일, 결혼 15일(자연일수 기준), 자녀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사고, 입원, 중병, 수술 후 요양 등의 경우 2일(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4일), 수유 1일 1시간 등이 의무화돼 있다.

해고

고용 계약은 상호 협의, 계약 기간 만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은퇴나 사망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유들로 파기될 수 있다. 고용인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 집단 해고
- 객관적 이유
- 징계 처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당한 해고
 -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 계약소멸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
 - 객관적인 이유에 의한 해고: 20일분 급여 x 근속연수(최대 12개월)
- 부당한 해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재고용
 - 해고부터 판결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지급: 33일분 급여 x 근속연수(최대 24개월)

퇴직금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고용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으며, 퇴직 시점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스페인의 기본 정년은 현재 67세로, 퇴직연금 수령 직전 15년 이내 2년을 포함 최소 1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 퇴직 직전 180개월 평균급여(직전 24개월 명목급여 + 156개월 실질급여(물가인상률 반영)의 평균금액)의 약 85.7%를 기준급여로 사회보장세 납부 기간에 따라 최소 50%(15년 납부)~최대 100%(35년 납부)까지 연간 최대 39,468.66유로(2022년 기준) 한도까지 지급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로 퇴직 정년의 점진적 연장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퇴직 정년 연장: 67세
 - 2013년부터 매년 1~2개월씩 점진적 할증, 2027년 67세 정년
 - 조기퇴직정년 연장: 63세
 - 연금 100% 수령 조건: 사회보장세 38.5년 납입, 67세 퇴직
 -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 평균급여의 85.7%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사회보장세 납부자와 부양가족은 공립병원 진료, 입원 시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처방에 의한 의약품 구입 시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자는 약 10~20%, 근로자는 50~60%를 부담한다. 스페인은 외국인도 주민등록만 하면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만한 의료복지가 지방정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2012년 8월 31일부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무상의료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단, 응급실 이용이나 18세 미만에 대한 혜택은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고용보험

해고로 인한 실직,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무급휴직 및 한시적 근로시간 감축(10~70%)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시, 실직 직전 6년 이내에 최소 3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사회보장세 납부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720일간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최저 540.41유로~최대 1,519.92유로(2022년 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180일간은 기본급의 70%, 181일 이후 기본급의 5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

사회보장세 납부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최대 365일(180일 연장 가능) 동안 산재보험을 지급하게 됨.

-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혜택 제공
- 치료 기간 중 월급의 약 75%의 지원금 제공

국민연금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해 가입 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과 사회보장 상호인정 협정이 2013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 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5년간, 연장 가능)돼,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해오던 비용이 절감된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 기간이 합산돼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부담 범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률을 부담하고 있다.

- 고용자/피고용자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2022)
 - 일반 분담금(연금/의료): 고용자(23.6%), 피고용자(4.7%) / 합계(28.3%)
 - 실업보장: 고용자(5.5%), 피고용자(1.55%) / 합계(7.05%)
 - 직업훈련 분담금: 고용자(0.6%), 피고용자(0.1%) / 합계(0.7%)
 - 급여보장기금: 고용자(0.2%), 피고용자(-) / 합계(0.2%)
 - 총합: 고용자(29.9%), 피고용자(6.35%) / 합계(36.25%)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부과 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 조세법에 의거해 설립됐거나 사업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페인 영토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거주 법인'으로 간주해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페인 내 지사, 사무소, 고정사업장 등 비거주 법인을 소유한 기업은 해당 비거주 법인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거주 여부 결정에 이의가 발생할 시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방지과세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 행위에 따른 이익,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부과된다.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BI, Base Imponible)을 산출하는 방법은 [모든 원천으로 부터의 소득-공제 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이다.

2022년 기준,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율은 25%이다. 그러나 스페인 투자청에 따르면 투자, 고용 및 R&D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15%만 적용되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화석연료 탐사 및 채굴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업종(부동산 투자 기금을 포함한 단체 투자 기금: 1%, 특정 조합: 20% 등) 및 소재 지역(카나리아 특별구역: 4%)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IT 신기술 투자, 장애인 채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적용비율 및 일정이 달라지므로 전문 회계사 등을 통해 자사의 활동 중 해당 회계연도 세액 공제 수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세 이외에 설립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각 지방 세무서에 License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초시점부터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신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2~3년 후에 나타나는 히든 코스트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업 영업실적 외에 부지면적, 직원 수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 진출 시부터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 향후 부과가 예상되는 잠정 세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영토 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예: 외교관)
-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변경 실시 해당 연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를 진다.

스페인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영토에서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한 사람
-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직업이나 기업 활동의 기반이 스페인 영토인 경우

스페인 내 비거주자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스페인 국적자 중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하는 4년간 납세 의무를 가짐
- EU회원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총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 소득세 대신 개인 소득세 납부를 선택 가능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 부동산 자본 소득, 동산 자본 소득,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투자 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 동안 보유 자산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9~47%까지 누진 적용된다.

- 2022년 기준 스페인 개인소득세 구간별 세율
 - 0~12,450유로: 19%
 - 12,451~20,200유로: 24%
 - 20,201~35,200유로: 30%
 - 35,201~60,000유로: 37%
 - 60,001유로~300,000유로: 45%
 - 300,001유로 이상: 47%

부가가치세

기업이나 직업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까나리아, 세우타,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만들거나 수입한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납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이를 총괄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다. 부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21%: 기본 부과 부가가치세율
- 10%: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관목, 식물, 주택 구매 및 판매 등
- 4%: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등의 생필품 농축산물,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 보호시설 등
- 비고: 2021년부터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부가세가 기존 10%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하기 위해 전기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1년 6월 기준 21%에서 10%로 인하했으며, 2022년 7월에는 5%로 낮췄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천연가스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5%로 대폭 인하였다.

보험, 금융, 의료 서비스, 교육, 주택 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수출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까나리아 군도, 세우타 멜리야(Ceuta y Melilla)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까나리아 군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5%가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스페인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과세 기준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생산지국 과세원칙'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인터넷을 통한 구매 및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기본통칙을 발표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며, '기타유통증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된다.

특별소비세

- 담뱃세: 담배 제품 판매 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d Valorem 세율: 최종 소비자 가격의 51.0%
 - 고정세율: 담배 천 개비당 24.70유로
 - 최소세율: 담배 천 개비당 131.50유로(단, 최종소비자 가격이 196유로 미만일 시 천 개비당 141.00유로 부과)
 -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 가격 중 약 80%가 세금으로 구성됨.
- 주세: 크게 맥주, 와인/발효주, 기타 알콜음료(도수 22% 이상)으로 나뉜다.
 - 맥주: 헥토리터 당 2.75~9.96유로

- 와인: 헥토리터 당 0유로(주세 면제)
- 기타 알코올 음료: 헥토리터 당 830.25유로

○ 유류세: 2022년 기준 스페인 유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 휘발유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472.69유로~505.79유로
- 경유: 경유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96.71유로~ 379.00유로
- 바이오에탄올: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472.69유로~ 503.92유로
- 바이오디젤: 사용처에 따라 1,000리터당 96.71유로~379.00유로
- LPG: 사용처에 따라 1톤당 15유로~ 57.47유로
- CNG: 사용처에 따라 기가줄(GJ)당 0.15유로~1.15유로

○ 환경세: 스페인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환경세를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특별전기세: 5.1%
- 자동차세: 승용차의 경우 종류에 따라 12.62유로~112.00유로
- 폐기물처리세: 지방세로 지역마다 상이. 마드리드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톤당 1유로~8유로 부과

한편, 스페인 정부는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특별전기세를 5.1%에서 0.5%까지 낮췄으며, 전력생산세(7%)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해당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1) 스페인 지식재산권 개황

스페인은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반도체배치설계, 식품품종, 영업비밀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스페인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스페인 특허 및 상표 사무소(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SPTO'라고 함)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매번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문성이 있는 상업법원(the Commercial Court)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마드리드, 발렌시아 또는 바르셀로나 등에 설치되어 있다.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소송의 피고는 당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침해소송의 반소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페인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식품품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디자인권 침해 제외).

한편,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2) 스페인 국가관보원의 법전화 서비스

스페인 총리실 국가관보원은 주제별로 관련 법령을 전자법전의 형태로 편찬 및 현행화하여 상시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법전은 이중 "민법 및 기타 법령", "민사특별법"등의 법전과 함께 민사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 사항, 서적, 시청각 작품, 조형예술가, 공공행정, 납본, 지식재산권의 일반등재, 지식재산권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등 총 9개 소주제 이하 37건의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법전은 지식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다수의 법령과 서적 및 영화, 예술작품에 대한 추급권(Droit de suite), 납본(Legal deposit), 혹은 지식재산권의 일반 등재 등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을 한데 취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제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해당 전자법전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스페인 지식재산 관련 전자법전 링크:

https://www.boe.es/biblioteca_juridica/codigos/codigo.php?id=87&modo=2¬a=0&tab=2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스페인 법인 철수 및 청산은 해산, 청산, 소멸의 3개 단계로 구분되며, 2010년 발표된 기업법(Real Decreto Legislativo 1/2010) 제 360~400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령 링크는 이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10-10544>

1) 해산(Disolucion)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원인은 되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기업은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다. 기업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의 과반수가 해산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이에 찬성할 시, 동 기업의 해산 내용은 스페인 상업등기소에 반영된다.

○ 법인 해산의 원인

-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 주주들의 해산 선언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관에 법인의 유효기간이 이미 규정돼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 시 법인은 해산될 수 있다.

- 법률, 정관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해산될 경우 주주들의 해산 선언을 통해 법인이 해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견이나 불완전 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산이 선고될 수 있다. 특정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이 목표 달성 후 해산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회사 설립 목표의 달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회사의 순 자산이 자본금의 반 이하로 줄었을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 법인 해산의 결과 및 의무

- 사업활동 혹은 전문활동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회사는 비활성화 상태이지만 법인은 지속된다.

- 비즈니스 활동의 서비스 수당 혹은 재산을 건네주는 것에 의해 송장을 발행할 수 없다.

- 상법전과 대체적인 회계방안에 따라 회계장부를 계속 작성해야 한다.

- 회사는 장부들을 계속 공인해야 하고 상업 등기부의 연간계정에 예금해야 한다.

-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지속된다.

-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공제의무에 의해 주기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 회사가 활동 중이었을 때인 사업 기간과 연관된 송장의 부가가치세 성명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연간 개론서 혹은 사업의 최근 3분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지를 받을 회계 관련 메일 주소에 계속 접속해야 한다(의무적인 회사들: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기업)

2) 청산(Liquidacion)

법인의 해산은 청산절차로 이어진다.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인이 임명돼 대외적으로 청산기업을 대표하게 된다. 경영진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수도 있다. 청산인은 관보, 상업등기소,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의 청산 사실을 공고하고 청산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해산 사유 발생 시점의 기업의 재무 및 자산상태 확인
- 현존 사무 종결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해당 사실에 대한 주주 공지
- 대주주 보고서 제출(기업 재무/자산상태, 청산인의 활동내역서, 잔여재산 분배계획) 및 주주의 동의 청구
-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시, 지분 20% 이상의 대주주나 정부 주주 등은 청산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관리인(interventor)을 선임할 수 있다.

해산 및 청산 시 법인세(25~30%),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재산권이전세 등과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증인에 대한 비용 등도 청구된다.

3) 법인격의 소멸(Extincion de Sociedad)

법인격의 소멸 절차는 상업등기소를 통한 법인 등록 말소 행위를 뜻한다. 청산절차(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후 공증사무소에서 법인의 소멸에 관한 공증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공증문서에는 최종 청산결과 및 개별 주주들의 신상, 청산과 관련된 주주별 지분율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기업 청산 공고 및 최종 변제 후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했고,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의 확인이 포함돼야 한다. 공증사무서의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문서와 함께 법인 해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세무서(Hacienda Estatal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법인 소멸 날 까지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법인 소멸 절차는 마무리된다.

법인이 최종적으로 소멸되었음은 스페인 중앙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Central) 사이트 (<http://www.rmc.es/Home.aspx?lang=en>)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함으로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안내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식 증명서가 필요할 시에는 해당 기업이 소재했던 지역의 상업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4) 법인 청산 전문 컨설팅 기업

- 기업명: Conlexi
- 홈페이지: <https://www.conlexi.es/>

- 전화: +34 913 046 583
- 이메일: info@conlexi.com

o 기업명: Ilex Abogados

- 홈페이지: <https://ilexabogados.com/>
- 전화: +34 976 223 380
- 이메일: despacho@ilexabogados.com

o 기업명: Urbano Consultores

- 홈페이지: <https://urbano-consultores.es/>
- 전화: +34 960 095 891
- 이메일: info@urbanoconsultores.es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스페인의 인구수는 약 4,743만 명으로 EU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또한, 스페인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프랑스와 함께 매년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으로, 이들이 스페인을 여행하며 소비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의 1인당 GDP는 30,090달러('21년, IMF)로 세계 34위이다. 스페인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21년 기준 26,832유로로 포르투갈(20,602유로)보다는 높으나, 독일(52,556유로), 프랑스(39,971유로), 이태리(34,032유로) 등 인근 유럽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자료원 : IMF, Expansion>

소비 성향

1) 보수적 시장

스페인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상품 수명 주기가 긴 편이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소비재 구입 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오래 들이며,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구매빈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확대와 발맞춰 여행상품, 건강용품, 주방제품, 소형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구매와 TV 광고를 통한 구매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2) 구매력 있는 노년층 대상으로 한 실버마켓 기대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스페인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로 고령 인구가 매우 많다. 또한, 스페인은 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 노년층의 구매력이 우수하다. 공공연금 지급 수준은 2021년 기준 최저 월 851유로, 최고 2,707.49유로로, 2021년 평균 월급인 1,916유로와 비교해보면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페인의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못지않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년층의 연금소득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닌 자녀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스페인이 유럽 노령인구의 은퇴 이민 지역으로 선호되는 곳이라는 사실도 향후 실버 마켓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실버 소비층을 겨냥한 각종 기능성 미용제품, 건강관리 관련 상품, 전자기기 등 판매가 유망하리라 전망된다.

3) 가성비 중요

스페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21년 기준 26,832유로로, 독일(52,556유로)이나 프랑스(39,971유로)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2022년 1분기 기준 13.1%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소비자들은 인근 유럽국 소비자들에 비해 구매력이 다소 약화되어, 일반 소비재 구매에 있

어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장바구니에서 PB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이른다.

4) 온라인 구매 확대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정착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 보편화 등으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스페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Statista의 2021년 6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9%가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온라인 구매를 경험했으며, 36%는 매주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1년 전년대비 11.7% 증가한 577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과거 한국산 제품은 저가 저품질 이미지가 강했으나, 대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스페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자동차 브랜드 TOP10에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엘지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발표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매년 한국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밖에, 최근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스페인 내 한국 화장품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층에게 우수한 품질과 참신한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인 내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프리모르(Primor) 등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K뷰티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뷰티 스토어 역시 증가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CE 마크 및 기타 필수인증 사전 획득

스페인 바이어들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일지라도 하더라도 EU 내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CE 마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상당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의 관심도를 확인한 뒤 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보다, 사전에 필수 인증을 구비 후 바이어와 컨택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충분한 거래관심도 확인 후 방문 일정 조율

일부 바이어들은 구매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나름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구매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 놓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선 또는 이메일 교신을 통해 바이어 측에서 실제 구매에 관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매를 원하는 제품과 스펙 및 바이어가 원하는 구매 조건에 대해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현지 출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금전적 비용 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3) 독점유통계약

영업 능력이 부족한 바이어와 선불리 독점유통계약을 맺을 시 장기간 스페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점유통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바이어의 연간 매출규모나 시장 내 영업경력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첫 거래 시 수출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 제시

스페인 바이어들은 첫 거래 상담 시 T/T 30% 또는 50%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맺을 시, 바이어 측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L/C 등 최대한 수출기업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5) 대형 계약을 미끼로 한 무역사기 유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기업에서 한국기업에게 매우 큰 액수의 구매를 희망하는 척하며 접근하여, 계약 체결 직전 통관 수수료 또는 변호사 고용 수수료 비용 등을 요구한 뒤 해당 금액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령기업들은 샘플 구매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을 원한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 무역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코트라 무역관이나 현지 기업평판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실제 존재하며, 대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6) 이메일 무역사기 유의

이메일 무역사기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이메일을 해킹 또는 변조해 대금을 탈취하는 무역사기 대표 유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메일 무역사기 유형은 이메일 유사 변조로 해커가 철자 간 순서를 변경하거나 숫자·첨자를 추가해 수신자의 눈을 속이는 방식

이다. 특히 거래처와의 연락이 잦아지는 과정에서 경계심이 풀어져 이메일 주소 확인에는 소홀해지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해커가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이메일을 탈취해 오랜 기간 기업과 거래처가 주고받는 내용을 관찰한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고 인보이스 등 대금결제 관련 서류가 오가는 시기에 적극 개입해 거래처에 계좌정보가 바뀌었다는 메일을 보낸 후 기록을 삭제한다. 대금이 해커에 손에 넘어간 뒤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스페인의 바이어나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미팅 신청을 하면 회신을 받는 데 약 일주일 이 소요되며, 최초 접촉을 메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 메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워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회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보통 스페인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탄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약속을 잡을 때 확인을 하며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요일은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15시에 업무 시간이 끝나므로 업무 관련 약속을 잡을 때 금요일 오후 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집중근무 시간을 적용하는 7~8월이다. 여름 두 달은 스페인 대부분의 업무 지역에서 9시 ~15시까지만 근무한다. 또한, 많은 직장인이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장기로 휴가를 떠나기도 하니 약속이나 미팅을 잡기 전 담당자의 일정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출장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는 미팅을 신청해 항공권 구매 이전에 미팅 일정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정해진 약속은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정중히 양해를 구해야 한다. '라틴계 민족은 게으르거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으나, 비즈니스가 세계화되면서 시간개념이 매우 철저해졌다. 따라서 바이어를 방문할 때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방문의 경우, 건물 로비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담당자에게 안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15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

스페인에서는 악수, 포옹, 도스 베소스(dos besos) 등의 인사법이 있다. 비즈니스 만남, 특히 첫 만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은 악수이다. 남녀가 악수를 할 경우 여성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매너이며, 악수하면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한국처럼 악수하면서 몸을 숙일 필요는 없다. 포옹은 경우 주로 막역한 사이에 나누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 남성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인사법이나, 첫 미팅 시에는 바람직한 인사법이 아니다. 두 번의 키스라는 의미의 '도스 베소스(dos besos)'는 양쪽 뺨을 번갈아 맞대면서 하는 인사법으로, 반드시 입술을 뺨에 닿 필요는 없고 가볍게 쪽 소리를 내는 것이다. 과장된 소리를 내거나 정말 입을 맞출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스페인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동양인에게 첫 비즈니스 미팅부터 스페인식 도스 베소스로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상대방이 해당 인사법으로 인사를 해올 경우, 스페인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인사법이므로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스페인 내 비즈니스 인사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악수 및 포옹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을 동반하는 인사법보다는 각자의 팔꿈치를 맞부딪치며 유쾌하게 인사하는 방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도스 베소스 역시 바이러스 전파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법이므로 사회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타고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도 예의이며, 문 입구,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Hola(올라)" 내지는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라고 말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 다시 떠날 때는 "Hasta Luego(아스따 루에고)"라고 작별 인사를 한다. 모르는 사람의 인사에 응대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니 같이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물

스페인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며, 구체적인 성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선물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명함집, 책갈피 등 한국적인 느낌을 담은 작은 선물들은 부담 없이 건넬 수도 있다. 또한 미팅에서의 선물보다 크리스마스, 새해 등의 카드 발송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이나 별장 등으로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유로 미만의 중저가의 와인이나 꽃,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것이 무난하다.

4) 복장

스페인 사람들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격식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거나 중요한 미팅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편안한 차림도 무관하다. 공식적인 만찬이나 사교행사에 초대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복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맨들은 정장차림이라고 하면 통상 낮에 입는 양복을 생각하지만, 유럽 사교모임에서의 정장에는 다양한 드레스코드가 있으므로 사전에 드레스코드를 확인해 의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경우 한국 식 정장차림으로 저녁모임에 가는 경우 매우 어색해 보일 수 있으므로, 저녁 사교모임이 예상되는 경우 정장 원피스나 칵테일 드레스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식사

스페인 사람들은 식사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2~3시간씩 이어진다.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한국과 달라 점심은 14~16시, 저녁은 21~23시 사이가 가장 일상적이므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 음식이 나오면 급히 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간단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두는 것도 좋다. 식사시간에 대화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므로 음식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절한 대화 주제를 몇 가지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안내를 받고 나서 자리에 착석해야 한다. 또한, 어느 식당에 가나 웨이터가 메뉴판을 주면서 가장 먼저 마실 것을 주문받는다. 웨이터를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반드시 웨이터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한 후 웨이터가 테이블까지 왔을 때 필요한 사항을 얘기해야 한다.

식사시간에는 가급적 양손을 테이블 위에 두되 팔꿈치로 기대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과 속도를 맞추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입에 두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소리 내면서 먹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또한 식사 중에 스페인 사람과 대화 시 손을 이용한 제스처를 할 때, 손에 들고 있던 포크나 칼은 내려놓고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서양식 테이블 기본매너(빵과 물의 위치, 냅킨 사용, 와인 잔의 구별 등)는 사전에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 계산할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웨이터에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계산한다. 아직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대략 남은 동전만 놓고 나와도 된다.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므로, 식사 중의 술은 와인 한두 잔으로 족하다. 나이와 관계없이 와인과 물을 비롯한 모든 음료는 한 손으로 따르고 한 손으로 받는다. 보통 한 사람이 자신의 식탁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빈 와인 잔을 채워주며 마지막에 자신의 와인 잔을 채운다. 와인을 받을 땐 식탁에 놓인 잔의 바닥 부분에 손을 대 놓는 것이 좋다. 과도하게 술을 권하거나 속칭 '원샷'을 강요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6) 명함 매너

명함 매너는 전 세계 공통적인 글로벌 문화에 속하므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함에 회사로고, 자신의 이름, 직위, 회사이름,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넣는다. 명함은 반드시 명함지갑을 준비해 그곳에 넣어 상의 안주머니나 가방 등 꺼내기 쉬운 곳에 둔다.

명함을 줄 때는 명함집에서 꺼내서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180도로 돌려서 상대방의 가슴 높이 정도로 공손히 내민다. 방문자 쪽에서 먼저 건네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용건이 있는 사람이 소개하는 차원에서 먼저 건넨다.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식사 중에는 명함을 전달하지 않는다.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가 오고 간 후 서로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만 교환하고 정확히 통성명하면서 건넨다. 받을 때도 일어서서 받고 감사인사를 한다. 상대방의 명함을 만지작거리거나 앞에서 구기는 행위, 탁자를 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면전에서, 상대방에 대한 메모를 명함에 하는 것은 결례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과 달리 3종류의 명함을 사용한다. 첫째로 성명만 기입하고, 여백에 초대 내용을 쓸 수 있는 초대용이 있고, 둘째로 성명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한 일반용, 마지막으로 여기에 직장과 직함까지 기입한 사업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쓴다.

7) 역사/정치적 금기사항

스페인인 1936~1939년에 왕당파와 공화파로 나뉘어 내전을 치렀으며, 왕당파를 이끈 프랑코의 승리로 내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게릴라 활동과 이에 대한 탄압이 계속된 갈등의 역사가 있다. 현재까지도 프랑코를 지지하는 세력과 악랄한 독재자로 기억하는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있으며, 지역 간 갈등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로는 왕실의 존재의미 자체에 의문을 던지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과의 대화 시에는 프랑코에 대한 평가나 왕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흥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입장 차가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라면 분위기가 험악해져 필요한 비즈니스 상담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외에도 카탈루냐 및 바스크 분리주의, 영국과의 지브롤터 영유권 갈등 등 스페인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관련 이야기나 스페인 중앙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 주간의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축구 이야기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래 들어 스페인 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나타내거나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8)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지양

유럽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한다. 자신에 대한 신상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비즈니스 상대방도 같은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들과 업무상으로 만났을 때, 친밀감을 높인다는 의도로 개인적인 신상정보(나이, 결혼 여부, 가족관계, 종교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업관계를 유지해 온 친밀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경우에도 서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9) 바이어와 상담 시 서두르지 않기

스페인 바이어의 경우 가격, 구매 조건, 제품 스펙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 후 소량 샘플 오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바이어의 소량 샘플 오더 이후 정식 오더로 넘어가는 시간도 보통 1개월에서 약 3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실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현지 바이어들의 정식 오더 진행이 시작되면 구매 오더는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므로 첫 오더를 수주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www.amazon.com) ○ 개요: 세계 최대 상거래 플랫폼으로 스페인 온라인 시장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물류 인프라 확장 정책으로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 2021년 기준, 아마존은 스페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약 30여 개의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아마존은 2011년부터 스페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내 연간 매출규모는 파악되지 않으나, 고용인원은 2021년 기준 1.8만 명에 달한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용품, 전자제품, 패션, 잡화 등 각종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기업인 디아(Dia)와 함께 신선/냉동 식품도 판매를 시작했다. 2) El Corte Inglés(www.elcorteingles.es) ○ 개요: 스페인 최대 백화점 체인기업으로 86개의 백화점, 42개의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사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 스페인 온라인 시장의 약 9%를 점유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és)는 1940년 설립되었으며, 매출규모는 2020년 기준 104억 유로, 직원 수는 2020년 기준 8만 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용품, 전자제품, 패션, 잡화 등 각종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초고속 당일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Click&Car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백화점 주차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Ali Express(es.aliexpress.com) ○ 개요: 중국계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으로 2017년부터 스페인 내 판매법인을 운영 중에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알리 익스프레스 소유주인 알리바바 그룹은 1999년 창립했으며, 전체 알리바바 그룹 직원수는 2021년 기준 25만 명에 달한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스페인 내 매출 정보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용품, 전자제품, 패션, 잡화 등 각종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역에 총 2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다. 4) Carrefour Espaa(www.carrefour.es) ○ 개요: 프랑스계 유통기업으로 스페인 내 205개의 대형마트와 111개의 슈퍼마켓을 운영 중에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까르푸는 스페인 시장에 1976년 진출했다. 매출 규모는 2021년 기준 105억 유로이며, 직원 수는 3.5만 명에 달한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용품, 전자제품, 패션, 잡화 등 각종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전체 매출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MediaMarkt (mediamarkt.es) ○ 개요: 독일계 유통기업으로 스페인 내 106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메디아 마아크트는 스페인 시장에 2000년에 진출했다. 매출 규모는 2020년 기준 18.2억 유로이며, 직원 수는 6.5천 명에 달한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액세서리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메디아 마아크트는 온라인 매출 규모는 연간 약 6억 유로로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한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스페인을 활용한 제3국 수출사례

국내 자동차 중고부품 수출업체 A사는 한국에서 수집한 중고 부품들을 후진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유럽 지역으로의 진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스페인 바이어 B사를 통해 어렵게만 생각되던 쿠바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언어 문제로 인해 KOTRA의 문을 두드렸다. KOTRA의 지사화 사업에 가입한 A사는 KOTRA의 지원으로 B사와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으며, B사가 곧이어 한국으로 출장 가서 A사를 만나는 등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으나, 곧 난관에 부딪혔다. 중남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B사였지만, 쿠바의 비정상적으로 느린 행정절차와 의사결정, 대금결제 관행을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은 쿠바시장 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과정에서 아프리카 등에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바이어를 발굴해 아프리카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스페인 기업 C를 만날 수 있었고, C사를 통한 아프리카 우회 수출에 성공했다. 스페인은 과거 식민지로서 언어와 문화가 같은 중남미뿐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아프리카 지역과도 경제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므로 스페인 기업들을 활용해 제3국 시장을 두드리는 것도 효과적인 시장개척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KOTRA 서비스를 활용한 수출 성약

사례 1

의료기기 전문업체 S사는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다지긴 했으나 수출 경험은 많지 않은 내수기업이다. S사는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웠다. 먼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시장정보 조사를 의뢰했고, 스페인이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바로 무역사절단을 신청해 직접 스페인으로 와 바이어를 만나고 상담을 했다. 그 결과, 작지만 샘플 수출을 이루고 추후 거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내수기업의 경우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무역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분석과 시장 공략을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례 2

1980년 서울에 설립된 A사는 사물함과, 신발장, 우산 보관 시스템 생산업체로서,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다양한 고객층을 상대로 국내 영업에만 전념하던 제조사였다. 2010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품질 제고 노력을 하였지만 수출에 대한 지식 부족과 해외시장 정보 미흡으로 수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코트라 내수기업 신규 수출 기업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해당 기업은 2018년 여름부터 코트라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2019년 3월 샘플 수출에 성공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A사는 바이어 발굴과 인보이스 작성법, 세관 수출 신고 방법 등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한 모든 수출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1차 샘플 수출 성공, 현재 하반기 정식 거래를 위해 바이어와 협상 중이다. 바이어는 현지 레이나 소피아 국립 미술관, 마드리드 왕궁 등과 같은 곳에 사물함과 우산 보관시스템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해당기업 제품의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했다.

이처럼 수출에 전혀 경험이 없는 내수 기업들은 내수 기업만을 위한 서비스 즉, 관심 바이어 발굴 외에,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해외 진출 성공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사례 3

차량용 냉동기기를 제조하는 A사는 프랑스 트럭 전시회에서 스페인 바이어 B사를 만났다. 스페인의 차량용 냉동기기 시장은 이미 다수의 유럽, 북미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포화 상태였으나, A사는 기존 브랜드에 비해 품질은 비슷하나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 B사는 A사와의 거래를 희망했다. 또한, A사는 B사를 만나기 전부터 CE인증 획득 및 ATP 테스트 실시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양사 간의 거래상담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A사의 경우 스페인 내 영업은 물론 AS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과의 거래를 희망했는데 B사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어, 첫 번째 만남이 성사되고 일 년 만에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될 수 있었다.

3) 기술력으로 유럽산 제품을 누른 국내 기업

신발산업은 이제 후진국형 사양산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부산에 소재한 토종기업 D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등산화로 스페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D사는 R&D에 적극 투자해 글로벌 기술특허를 수십여 개 보유하고 있으며, ISPO 등 주요 박람회를 통해 세계 등산화 트렌드를 주도할 만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아 글로벌 수상경력도 자랑한다. 현재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KOTRA의 ‘월드챔프’ 사업에 참가해 현지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전문지 등을 통해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유럽산 등산화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4) 제품 및 시장 특성을 파악한 포지셔닝

사례 1

90년대 후반 이후 스페인 섬유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중국산 저가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어 시장 내 재 포지셔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 이상 가격으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제품과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마드리드 무역관에서는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한 S사에 철저한 시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능성 섬유로 제품 질을 높여 시장에 진출하라고 조언했다. 유럽의 고가제품과 경쟁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FTA로 인해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기도 했다. 특수 기능성 섬유를 취급하는 스페인 바이어를 발굴해 오랜 협상 끝에 거래 성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던 바이어는 한국 업체의 끈기와 순발력을 믿고 본인이 원하는 스펙을 업체에 요청해 제작하도록 했다. 결국, 유럽산 고성능에 절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바이어를 흡족하게 했고, 한국 업체는 바이어 수는 적지만 안정적인 물량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술력을 높여 성과를 이뤄낸 좋은 사례이다.

사례 2

한국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수입/유통 중이던 스페인 A사는 취급 품목 범위를 미용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동 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부가가치의 미용 제품을 물색하였고, 한국의 얼굴 마사지기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과는 달리 전문가가 세라믹으로 수작업을 통해 만든 해당 제품을 스페인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으며, 매우 뛰어난 효과를 얻게 되어 높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특히, 최근 한국 뷰티 관련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던 터라 한국산 얼굴 마사지기 수입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다.

5) 현지기업 인수를 통해 생산기술력 향상

기계 및 구조물의 부품 또는 부속품을 접합하는 기초 부품인 패스너(Fastener)를 제조하는 기업인 G사는 2015년 스페인 최대 냉단조 제조업체로 스페인 및 루마니아 지역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I사를 인수했다. I사는 에어백,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 차량용 단조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G사는 M&A를 통해 스페인 기업의 단조 생산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패스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패스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패스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

사례 1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발생으로 스페인 정부는 바이러스 진단키트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마드리드 무역관은 보건부 측에 한국 진단키트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부는 그 중 A사 제품에 관해 관심을 보여, 마드리드 무역관은 보건부와 A사 간의 온라인 상담을 여러 차례 주선했다. 보건부는 A사 측에 기 CE 인증, 자유판매증명서 외에 스페인 현지 공립 연구소에서 해당 진단키트 성능 테스트를 요구해, 마드리드 무역관은 추가 상담을 통해 A사가 스페인 B 연구소에 샘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성능 테스트 결과가 보건부 측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 A사는 2020년 5월부터 보건부 측에 진단키트 제품을 대량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중보건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에 힘입어, A사는 스페인에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트 손잡이용 살균기를 판매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러한 살균기 제품은 그간 스페인 내 공공장소에서 거의 사용된 바가 없어 아직 현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품은 아니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품은 위생 관련 기기를 취급하는 유통기업에 의해 수입되었으며, 현재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스페인인 유럽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국 중 하나로 동 조약은 1985년 유럽국간 내부 국경 통제를 폐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가별 통행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 조약이다. 이로써 쉥겐조약 가맹국들은 공통의 쉥겐 사증을 이용해 유럽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유럽 국가 외 지역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으며 쉥겐 조약 가입국은 총 26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 쉥겐조약 가맹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스웨덴

한국과 스페인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 단순 관광목적의 방문 시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쉥겐 조약 협정으로 쉥겐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도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 방문을 계획 중인 한국인 관광객은 스페인으로 출국 전, 쉥겐 체결 조약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입국 목적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입국 후 체류 목적, 기간 변경 등으로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경우 현지에서 수속이 불가능해,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 목적 외 유학, 취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비자 발급은 주한 스페인 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및 수령을 위해서는 대사관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필수적이다. 비자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지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비자 승인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및 접수증을 지참해 월·수·금요일 09:00 ~ 12:00 사이에 방문하여 비자를 승인할 수 있다.

○ 주한 스페인 대사관

- 홈페이지: <http://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es/Paginas/inicio.aspx> /

<https://www.exteriores.gob.es/es/Paginas/index.aspx>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36길, 17번지, 04417

- 전화번호: 02-794-3581/2

- 이메일: emb.seul@maec.es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학생 비자 (성인 학생, 무급인턴, 무급연구원, 무급 교환교수 등이 해당)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여권

- 비자신청서

- 증명사진 4x4cm

- 스페인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 허가서 원본(학생일 경우), 스페인 기업에서 발행한 무급 인턴 증명서 원본(무급 인턴일 경우), 스페인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무급 연구원 허가증 원본(무급 연구원일 경우), 스페인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무급 교환교수 허가증 원본(무급 교환교수일 경우)

- 재정 보증서, 또는 소득 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 여행자 보험 증명서(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이어야 함)
- 신청자가 만 20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보호자의 여행 허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노동비자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20일 이상 남은 여권
- 비자신청서
- 증명사진 4x4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 거주 및 노동 허가서 원본

○ 예술인 노동 비자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 90일 이상 남은 여권
- 비자신청서
- 증명사진 4x4cm
- 스페인 고용 계약서
- 항공표
- 여행자 보험 증명서 (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이어야 함)

○ 가족 동반 비자

- 비자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여권
- 스페인 외무부에서 발급한 가족 동반 허가서 원본
- 스페인에 체류 중인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 스페인에서 체류 중인 가족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 진단서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한편 2018년 10월 24일, 한-스페인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어 연간 약 1,000명의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 , 1년 동안 스페인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시에 여행 자금 충당을 위한 단기 취업도 가능해 졌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후에는 스페인 TIE(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를 신청할 수 있다. TIE는 스페인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밖에 현지 생활(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중 요구될 수 있어 발급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만 18~30세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 기존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등

또한, 해당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항공권 예약권
- 자금증명서

- 여행자보험증서
- 건강진단서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해당 비자는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http://whic.mofa.go.kr/index.do>)를 활용하면 문화, 생활, 일자리 등의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입국 조건(2022년 9월 28일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EU+셴겐협약국 외 제3국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는 스페인 입국시 백신·음성·회복증명서 중 하나를 의무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로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접종 완료 후 14일부터 270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자 및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없음) ▲음성확인서(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등 NAAT 검사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회복증명서(확진 후 11일부터 180일까지, 확진 양성확인서와 함께 소지) 중 1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만 12세 미만 소아, 24시간 이내 공항 내 환승객 등은 면제 대상이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스페인 입국 혹은 출국 시 1인당 1만 달러 상당(혹은 이에 상당하는 외화)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소지했을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이를 압수할 수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점에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작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 상점이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점에서 "Tax Free"라는 로고가 보인다면 환급이 가능한 곳이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최소 구매 가격은 90유로이다. 한 매장에서 90유로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환급이 가능한 상점의 경우, 물건을 계산할 때 상점 직원에게 세금 환급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제품 가격과 환급받을 금액이 적혀 있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후에 공항 세관(Aduana)에서 세금 환급 신청할 때 내면 된다.

환급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나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 원화로 돌려받게 될 경우 별도의 환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경우 유로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34) 913 532 000,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34) 648-924-695
주소	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es-ko/index.do
비고	근무시간: 대사관 일반업무(월~금) 오전(09:00~14:00), 오후(16:00~18:00)/ 영사과 민원업무(월~금) 오전(09:00~14:00), 오후(16:00~18:00) [7~8월은 09:00~14:00에만 운영]

○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34) 917 024 550
주소	P.Castellana 15, 28046, Madrid
홈페이지	http://spain.korean-culture.org/es/welcome
비고	1)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은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교류 증진과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다. 2011년 6월 3일 마드리드에 개관하여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그리고 문화 강좌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 관광, 체육 등을 스페인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등 한국과 스페인 간의 이해와 교류 확대에 힘쓰고 있다. 2) 근무시간: 월-금 10:00-19:00 (점심시간 14:00-15:00) [7~8월은 10:00-15:00]

○ 재 스페인 한인총연합회

전화번호	(34) 696 442 581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114, 1a-8, Es.4 28046 Madrid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gospain/www/
비고	○ 이메일: emperatores@hotmail.com

○ 주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34) 934 873 153,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34) 682 862 431
주소	Passeig de Garcia, 103, Planta 3, 08008, Barcelona, Spai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es-barcelona-ko/index.do
비고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4:00, 15:30~17:30/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3:30, 15:30~17:00)

○ 까탈루니아 한인회

전화번호	(34) 609 544 522
주소	Carrer de Pere IV, 344, 08019, Barcelona, Spain
홈페이지	http://www.hanincat.com/gboard/index.php
비고	○ 이메일: info@hanincat.com

○ 주 라스팔마스 분관

전화번호	(34) 927 024 550
주소	Luis Doreste Silva 60. 1º P, 35004 Las Palmas de Gran Canaria, SPAI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es-las-ko/index.do
비고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3:00, 14:30~17:00/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3:30)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전화번호	(34) 91 349 46 40
주소	P. de la Castellana 160, C.P. 28046 Madrid
홈페이지	http://www.minetad.gob.es/
비고	해당 정부 부처는 다음의 네 개의 상부 기관으로 이루어져있다: 관광부 장관, 통상부 장관, 산업 및 중소기업 부 사무총장, 산업통상관광부 차관 ○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의 역할 및 권한 - 장관급 기관 구조조정 - 장관급 기관 조직 구조 허가 권한 -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조직 구조 발전 ○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7:30 토요일: 09:00-14:00 *6월 16일-9월 15일: 월요일-금요일: 08:00-15:00 / 토요일: 09:00-14:00 (8월은 토요일 근무 X)

○ 스페인 경제디지털전환부 (Ministerio de Asuntos Económicos y Transformación Digital)

전화번호	(34) 912 582 852
주소	P. de la Castellana, 162. 28046-Madrid
홈페이지	https://portal.mineco.gob.es/es-es/Paginas/default.aspx
비고	스페인 경제, 금융 관련 정책 수립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스페인 중앙은행

전화번호	(34) 913 385 000
주소	Calle Alcalá, 48. 28014 Madrid
홈페이지	https://www.bde.es/
비고	○ 스페인 중앙은행의 역할 및 기능 - 유럽연합 중앙은행체제의 통화정책을 파악하고 이행하는 주요 단계 시행 및 물가 안정 감독 - 환율 정책 감독 및 공식 외환보유고 감독 - 유로존 내에서의 건전한 지불 문화 증진 - 지폐 발행 - 유럽중앙은행 관련 이외에 통화 및 회소가치 금속 관리 - 통화 및 금융에 관련한 통계자료 발행 - 재정 서비스 및 정부 부채 감독 - 정부 재정 정책 및 연구에 대한 감독 ○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4:00

○ 스페인 대외무역진흥청(ICEX)

전화번호	(34) 900 349 000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278 28046 Madrid
홈페이지	https://www.icex.es/icex/es/index.html
비고	스페인 경제산업장력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82년 창설되었다. 과거에는 스페인 기업의 무역진흥만을 전담했으나, 2013년 스페인 투자유치청(Invest in Spain)과 통합해 무역진흥과 투자유치 업무를 겸업하고 있다. 해외 약 80국에 스페인 대사관 소속 무역사무소 형태로 126개의 공관을 운영 중이며 스페인 경제산업 경쟁력부 무역청 청장과 ICEX CEO가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스페인 투자진흥청은 2012년 7월부로 대외무역진흥청 ICEX에 흡수됐으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대외적으로는 Invest in Spain을 병행 사용. 스페인 투자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investinspain.org/invest/es/index.html

○ 스페인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INE)

전화번호	(34) 91 583 91 00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183 (entrada por Estebanez Calderon, 2) 28071 - Madrid
홈페이지	http://www.ine.es/
비고	스페인의 국가 행정에 관련된 통계 서비스를 담당하는 스페인의 자치적인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인구 동태, 경제 상황, 사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분석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농업과 환경 - 과학과 기술 - 인구 (통계학) - 산업, 에너지 및 건설 - 노동시장 - 삶의 수준 - 사회

○ 스페인 국세청(Agencia Tributaria)

전화번호	(34) 91 583 89 78
주소	Calle Infanta Mercedes, 37 28020 Madrid
홈페이지	https://www.agenciatributaria.es/
비고	○ 문의 내용에 따라 위치 및 전화번호 상이하므로 하단 홈페이지 확인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Inicio/_otros/_Direcciones_y_telefonos/_Direcciones_y_telefonos_.shtml

○ 스페인 식약청 (Agencia Espan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AEMPS)

전화번호	(34) 902 101 322
주소	Calle Campezo, 1, 28022 Madrid
홈페이지	https://www.aemps.gob.es/home.htm
비고	스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 공공기관이다. ○ 주요 업무 - 의료용 및 수의과용 의약품 관리(평가 및 허가) - 약물 임상시험과 의료제품 임상연구 허가 - 이미 출시된 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 - 약제실 및 약의 유효성분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한 감독권 및 그들의 등록과 인가에 대한 권한 - 약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리 - 진통제 및 항정신성 약품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할 책임 및 권한 - 불법 약품, 의료제품 및 화장품 제재 등

○ Diario El Pais SL

전화번호	(34) 914 400 135
주소	Calle Miguel Yuste, 40, Madrid, 28037 , Madrid
홈페이지	https://elpais.com/
비고	스페인 주요 종합일간지

○ Expansion (Unidad Editorial Informacion Economica SLU)

전화번호	(34) 91 443 5000
주소	Avenida de San Luis, 25, 28033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s://www.expansion.com/
비고	스페인 주요 경제일간지

○ Cinco Dias (DIARIO CINCO DIAS SA)

전화번호	(34) 91 538 6100
주소	C/ MIGUEL YUSTE, 42, Madrid, Madrid
홈페이지	https://cincodias.elpais.com/
비고	스페인 주요 종합일간지 El Pais의 계열사로 주요 경제일간지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05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67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5.19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5.71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15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79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15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30ml	0.750
8	의료	감기약(Frenadol)	16정	9.420
9	교통	시내버스요금(마드리드)	기본요금	1.430
10	교통	지하철요금(마드리드)	기본요금	1.430
11	교통	택시요금(마드리드)	기본요금	2.39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남성 헤어컷 기준)	1회	11.46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600
14	서비스	전기요금(Iberdrola)	1Kwh	0.23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Cinesa)	일반	8.60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5.02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1.460
18	임금	최저임금(월급)	법정최저	955.37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 수업료(American School of Madrid, 9~12학년, Tuition Private 기준)	연간	20329.320
20	금리	EURIBOR 기준금리(%)	12개월물, 2022년 8월	1.250

<자료원 : 대상 기업/기관 홈페이지 및 마드리드무역관 자체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스페인인 EU 가입국으로 공용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어로는 에우로라고 읽으며 표기 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천 단위에 .(점)을 쓰고,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는 ,(십표)를 사용한다. 금액으로 소수점을 표시하는 십표 아래 단위는 센띠모라고 하며, 표현 시 00 에우로스 곧 000(센띠모스)라고 읽는다.

환전방법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달리는 호텔, 대형 백화점 외에는 받지 않으니 가급적 환전을 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율은 호텔·백화점 → 시내 환전소 → 공항 환전소 → 은행 순으로 높아진다. 2022년 5월 12일 기준 환율은 1유로=1,344.41원이다.

신용카드 이용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마트와 상점, 관광명소에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상점에 따라 10유로 이하의 경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출 시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결제 시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유로로 결제할 것인지 통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 유로로 결제해야 환율이 덜 불리하게 적용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지하철 및 버스는 한국과같이 한 번 티켓을 구입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 환승을 할 수 있으며 1회 시내 구간 티켓은 마드리드가 1.50유로이다. 10회권은 12.20유로로 유효기간이 없어 1회권보다 더욱 경제적이며,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정기교통권(Abono Transportes)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Abono Transportes를 이용하면 A존 일반 요금 기준 월 54.60유로로 지하철, 버스, 세르카이나스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일 경우 청소년용 정기교통권(Abono Joven) 요금제를 통해 구간에 상관없이 월 20유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드리드 대중교통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https://tarjetatransportepublico.crtm.es/>) 후 우편 수령하거나 지하철 역내 교통카드 사무실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사진 촬영,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도시의 지하철은 보통 5시~익일 1시까지 운행하는 편이며 버스는 야간버스가 적잖이 있어 한국보다 밤에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스페인의 러시아워는 8~10시, 그리고 18~20시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시간대이다.

버스

스페인인 마드리드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망이 잘 발달해 있으며, 기차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고 일반 철도보다 시간도 더 적게 걸리며, 철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마드리드에서 지하철 6호선(회색) Méndez Alvaro역에 남부버스터미널(Estacion Sur de Autobuse)이 가장 큰 주요 터미널이고, 고속버스 회사에 따라서 다른 소규모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터미널을 잘 확인해야 한다. 스페인 내의 대표적인 버스회사는 ALSA(www.alsa.es), AVANZABUS(www.avanzabus.es), SOCIBUS(www.socibus.es)이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케줄 및 가격 조회, 인터넷 예약까지 마칠 수 있다.

택시

서비스는 정직한 편이며 합승이나 호객 행위는 없다. 도로에 TAXI(택시) 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택시 정류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도로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차 지붕에 녹색 불이 켜있고, 조수석 앞 유리창에 'LIBRE'라는 글자판이 붙어있는 것이 빈 택시이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지붕에 노란 불을 켜고 'OCUPADO'라는 글자판으로 바꾸게 돼 있다.

택시 통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중전에는 콜택시를 부를 경우 인근 지역을 지나가던 일반 택시가 무선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미터기를 켜고 고객이 있는 곳까지 왔으나 콜택시를 부를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콜택시 회사로는 빠데택시 (Pidetaxi/전화번호:(+34)91-547-8200), 그레미알택시(Gremial Taxi/전화번호:(+34)91-447-5180) 등이 있다. 한편, 택시 요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택시기사에게 'Recibo, por favor(레씨보 보르 파보르)'라고 하면 영수증을 써준다. 영수증에는 택시 면허번호가 인쇄돼 있기 때문에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을 경우 택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휴대폰 인터넷 연결이 용이할 경우 Cabify, Uber, Mytaxi 등의 어플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러한 택시호출 앱의 경우 행선지까지의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 이용요금과 비슷한 편이다.

기타 교통수단

카셰어링

기차나 고속버스 등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카셰어링의 방법이 있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카셰어링은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차주가 카셰어링 홈페이지에 여행 루트, 출발시각, 희망 가격, 제공 가능 자릿수 등을 표기하며, 같은 루트를 여행하고자 희망하면 차주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만남 장소 등을 합의하는 시스템이다. 가격은 100km에 4유로 정도가 일반적이며 차종, 제공 가능 자릿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카셰어링을 이용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조심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를 통해 차주의 카셰어링 제공 횟수, 평점,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평점이 높고 이용 횟수가 많은 차주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카셰어링 플랫폼은 BLABLACAR(www.blablacar.es)이다.

다. 통신

핸드폰

스페인에서는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모두 지역 번호를 먼저 누른 후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있다. 주요 지역 번호는 마드리드 91, 바르셀로나 93, 발렌시아 96이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거는 전화 요금은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싸므로 한국에서 출장 오기 전 미리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해 오거나 한국에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경제적이다.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요금이 서너 배는 더 비싸다. 장기간 출장 시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불 카드제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즉석에서 휴대폰을 사서 쓸 수 있다. 전화기는 모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대표적인 휴대폰 대리점으로는 Movistar나, Orange, Vodafone이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대표적인 휴대폰 대리점 MOVISTAR나, Orange, Vodafone 등에서 선불 전화 유심칩(MOVIL PREPAGO)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본 20유로 정도면 즉석에서 구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Orange의 경우 10유로에 1달 동안 1.5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유심칩 구매 시 여권 등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스타벅스나 유명 체인 카페 Rodilla 등의 카페에는 와이파이기가 있어 사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지 무료 와이파이 존이 많지는 않다.

라. 관광명소

○ 사그라다 파밀리아 (Basilica de Sagrada Familia)

도시명	Barcelona
주소	Carrer de Mallorca, 401, 08013 Barcelona
운영시간	10~2월 9:00~18:00 3월 9:00-19:00 4~9월 9:00-20:00 *공휴일이 낀 12월 25, 26일, 1월 1일, 1월 6일은 9:00~14: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어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다.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을 책임졌다. 가우디는 1883년부터 40년 이상을 이 교회의 건설을 책임졌으며, 말년의 15년간은 여기에만 매진했다. 1935년 스페인 내전으로 건축이 중단됐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재개됐다. 1926년 가우디가 죽은 후 미완성 건물 일부와 성당 모형이 스페인 내전 와중에 부서지기도 했다. 현재 관람객 수 기준 프라도 미술관과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제치고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건축물이다.
비고	전화: (34) 932 080 414 홈페이지: http://www.sagradafamilia.org/es/

○ 몬주익 언덕(Montjuic)

도시명	Barcelona
주소	Montjuic 08038 Barcelona
운영시간	24시간 개방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몬주익 언덕(Montjuic)은 바르셀로나 서부에 위치한다. 고도 213m로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역 (L2호선과 L3호선이 지나가는 Paral·lel역)과 몬주익을 잇는 케이블카 푸니쿨라(Funicular)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장관이다. 올림픽 주 경기장, 갤러리, 박물관, 야외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마련돼 있다. 각종 흥미로운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밤에는 마드리드 스페인 광장의 음악 분수대에서 화려한 레이저 쇼가 펼쳐진다. 버스로는 L1과 L3호선이 지나가는 Espanya 역에서 내려 150번 버스를 타면 된다. 150번 버스는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7시부터 21시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배차 간격이 있다.
비고	몬주익 분수쇼 시간은 하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barcelona.cat/en/what-to-do-in-bcn/magic-fountain/magic-fountains-show-times

○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도시명	Madrid
-----	--------

주소	Paseo del Prado, s/n, 28014 Madrid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20:00 일요일 10:00~19:00 *1월 6일(동방박사의 날), 12월 24일과 25일은 14시까지만 개관
휴무일	매년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
명소소개	18세기 Carlos 3세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건축했으며, 1819년 Fernando 7세에 의해 왕실 미술관으로 개관해 현재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16세기 El Greco, 17세기 Velazquez, 18세기 Goya 등 스페인의 중세 3대 화가 작품을 위시해 16세기 이전 초기 무명 화가로부터 18세기 낭만주의 작품 및 고야의 회색 시대 암흑의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유럽 중세 회화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근대 작가들의 그림은 소피아 미술관 등 다른 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월~토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일요일 17:00부터 19:00까지는 관람료가 무료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무료입장권을 받은 후 입장해야 한다. 만 25세 이하의 학생인 경우 국제학생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비고	전화: (34) 913 30 28 00 홈페이지: https://www.museodelprado.es/

◦ 마요르 광장(Plaza Mayor)

도시명	Madrid
주소	Plaza Mayor, 28012 Madrid
운영시간	24시간 개방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1619년 Felipe 3세 때 건립된 100m x 200m의 장방형 광장으로 총 136개의 방으로 구성된 4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광장 주변 지역에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식당, 카페, 선물집 등이 있으며, 이중 특히 1725년 문을 연 Botin 식당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록돼 있으며 헤밍웨이가 자주 찾던 곳으로 유명하다. Plaza Mayor는 솔 광장(Puerta del Sol)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솔 광장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3호선이 만나는 Sol 역에서 내리면 된다.

◦ 왕궁(Palacio Real)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de Bailen, s/n, 28071 Madrid
운영시간	10:00~20:00 *동계 기간 (10월 1일~3월 31일) 10:00~18:00 *10월 12일은 5시 30분부터 개관 *12월 24일, 31일은 3시까지만 개관
휴무일	매년 1월 1일, 1월 6일, 5월 1일, 12월 25일은 휴무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명소소개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규모 면에서 손꼽는 왕궁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가 가장 웅장하고 호화로운 왕궁은 단연 마드리드 왕궁이다. 흔히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둘을 비교해보면 마드리드 왕궁의 내부가 훨씬 더 웅장하고 호화로운 데에 놀라게 된다. 사방 공히 150m가 넘는 마드리드 왕궁은 방 수만 무려 2,700개가 넘는다. 이 중 대중에 공개하는 방은 스무 개 남짓으로, 관광객들은 옛 스페인 제국의 번영과 영화를 짐작하게 하며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감탄하게 된다. 마드리드 왕궁은 비록 현재 국왕이 살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행사 시에는 관광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 1991년 중동평화협상, 2002년 유럽·중남미 정상회담, 각국 대사 신임장 제정 등이 그 예다. 원래 무어 족의 성채가 있던 자리에 1673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Felipe 5세가 성채를 허물고 목재로 왕궁을 지었는데, 1734년 크리스마스 날 화재로 거의 전소됐다. 4년 후 부르봉 왕가에 의해 석재로 다시 지어진 것으로 30년 걸려 카를로스 3세 때 완공됐다. 왕궁 안에는 국왕이 각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장엄한 느낌의 옥좌의 방, 다채색 화법의 대리석으로 치장된 가스파리니의 방, 88개의 도자기가 서로 연결, 분해 조립이 가능한 도자기의 방, 노란색으로 색조를 통일한 노란 방, 중국풍으로 치장된 중국 방, 약 150명이 함께 앉아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대만 찬장 등과 왕실 용품 전시장이 있다. 왕궁을 돌아 나오다 보면 마차 박물관이 있는 앞뜰(모로 정원)이 내려다보이며 저 멀리 옛 왕궁의 사냥터인 카사 데 캄포 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한, 광장 출구 쪽 오른쪽에 있는 스페인 제국 시대의 기마병 모습 및 무기 등이 전시된 무기 박물관도 놓치기 아까운 관광 장소이다.
비고	전화: (34) 914 54 87 00 홈페이지: http://www.patrimonionacional.es/

〈자료원 : 관광명소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라 파라데타(La Paradeta)

도시명	Barcelona
전화번호	(34) 93 268 1939
주소	체인점으로 바르셀로나에 5개의 지점이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격	해산물 선택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
영업시간	13:00~16:00 20:00~23:3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고	홈페이지: www.laparadeta.com

○ 라 알부페라(LA ALBUFERA)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 567 5197
주소	Calle del Poeta Joan Maragall, 43, 28020 Madrid

가격	27~37달러 (빠에야)
영업시간	13:00~16:00, 20:00~23:3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스페인 전통 빠에야가 가장 인기 메뉴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melia.com/es/hoteles/espana/madrid/melia-castilla/albufera.html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

○ 라 타호나(La Tahona)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 555 0441
주소	Calle Capitan Haya, 21, 28020 Madrid
가격	23달러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13:00~16:00, 20:30~23:30 일요일 13:00~16:00
휴무일	휴무일은 따로 없으나 매주 일요일 저녁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개	양고기 전문으로 유명한 식당이며 시내 몇 곳에 분점을 운영 중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s://asadordearanda.net/es/content/madrid-la-tahona 이메일: madrid@asadordearanda.com

○ 코랄 데 라 모레리아(Corral de la Moreria)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3 65 11 37
주소	Calle de la Moreria, 17, 28005 Madrid
가격	50달러 (공연관람비용)
영업시간	저녁+공연 관람 월요일~일요일: 18:00, 18:30, 21:10 공연: 월요일~토요일: 20:00, 22:45 일요일: 19:30, 21:30 17:30~00:00
휴무일	12월 24일, 12월 31일

소개	전통 있는 플라멩코 공연장이므로, 관람 중 식사도 가능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corraldelamoreria.com 이메일: info@corraldelamoreria.com

○ 오파조(Opazo)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 553 23 33
주소	Calle Reina Mercedes, 20, 28020 Madrid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13:30~16:00 20:30~2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갈리시아식 싱싱한 해물요리가 유명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opazo.es 해당 홈페이지에서 메뉴 확인 가능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 한국식당

○ 마루(Maru)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 523 9531
주소	C/ Reina 37, Madrid
가격	15달러 ~
영업시간	13:00~16:00 20:00~23:00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Gran via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하며 한식 및 일식을 즐길 수 있는 한식당.
비고	홈페이지 : restaurantemaru.com

○ 서울정(Restaurante Seoul)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 365 0087
주소	C/Ronda de Segovia 25, Madrid

가격	15달러 ~
영업시간	13:30~16:00 20:00~24:00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마드리드 왕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Puerta de Toledo이다.
비고	동명의 식당이 바르셀로나에도 있다.

◦ 아리수(Restaurante Arisu)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4 57 88 33
주소	Av. del General Perøn, calle trasera posterior, 6, 28020 Madrid
가격	15달러~ (메인요리의 경우)
영업시간	13:00~16:00 19:00~23:00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Santiago Bernabeu 축구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 가야금(Gayagum)

도시명	Madrid
전화번호	(34) 91 457 8833
주소	Bordadores 7, 28013 Madrid (마요르 광장 근처)
가격	15달러 ~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화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Sol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DO 플라카 레이알(Hotel DO Placa Reial G.L)

도시명	Barcelona
-----	-----------

주소	Plaza Reial , 1 08002,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4 813 666
홈페이지	http://www.hoteldoreial.com/en/hotel-overview.html
숙박료	300달러 (더블룸 기준)
소개	바르셀로나의 5성급 호텔로 투숙객 만족도가 높은 호텔이다.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풀, 사우나, 터키식 목욕탕, 베이비 시팅 서비스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마드리드 프린세사(Courtyard by Marriott Madrid Princesa)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de la Princesa, 40, 28008 Madrid
전화번호	(34) 915 42 21 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madcy-courtyard-madrid-princesa/
숙박료	150달러 (더블룸 기준)
소개	마드리드 중심가에 위치하여 관광 명소 접근성이 뛰어난 4성급 호텔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Arguelles역이다.

○ 캐노피 바이 힐튼 마드리드 카스테야나(Canopy by Hilton Madrid Castellana)

도시명	Madrid
주소	Plaza de Carlos Trias Bertr´n, 4, 28020 Madrid
전화번호	(34) 911 78 18 00
홈페이지	https://www.hiltonhotels.com/es_XM/espana/canopy-by-hilton-madrid-castellana/
숙박료	270달러 (더블룸 기준)
소개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및 시내와 가깝다. 레알마드리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Bernabeu 경기장이 근처에 있으며, 마드리드에서 가장 El Corte Ingles 백화점과 쇼핑거리 또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 NH 마드리드 나시오날(NH Madrid Nacional)

도시명	Madrid
주소	Paseo del Prado, 48, 28014 Madrid
전화번호	(34) 914 29 66 29
홈페이지	https://www.nh-hoteles.es/hotel/nh-madrid-nacional?utm_campaign=local-gmb&utm_medium=organic_search&utm_source=google_gmb&utm_term=lang-test

숙박료	190달러 (더블룸 기준)
소개	4성급 비즈니스 호텔로 시내와 아토차 기차역, 레티로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강력 사건은 많지 않으나 최근 수차례 폭행을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집시나 불법 이민자들이 떼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며,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 대상이다. 소매치기 유형은 몇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행인에게 길 물어보기, 달걀 던지기, 물 뿌리기 또는 주차된 차에 펑크 내기 등 주의를 흘뜨린 후에 접근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매치기하는 수법이 많다. 이 외 최근에는 호텔 앞에서 정신을 잠시 잃게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인적이 드물거나 늦은 시간에 호텔에 출입할 때는 주위를 잘 살펴보거나 가급적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스페인 사복경찰의 수가 증가하며 이를 역으로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가짜 경찰 신분증을 보이고 지갑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소매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절대로 신분증 외 지갑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역별로 보면 마드리드는 센트로에 위치한 라바삐에스(LAVAPIES)가 마드리드 관광지 근처에 있음에도 각종 범죄 발생이 빈번한 편이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잦은 소매치기 사건, 줌도둑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바르셀로나 중심 지역인 카탈루냐 광장은 소매치기 및 기타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한 몬주익 지구,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케리아 시장 등 주요 중심가에서는 관광객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집단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위급상황 전반 Servicio de Emergencia y Rescate: 112
- 국립 경찰 Policia Nacional: 091
- 시립경찰 Policia Municipal: 092
- 군인경찰 Guardia Civil: 062
- 교통청 Trafico: (34)91-301-8100
- 차량 견인 Grua Municipal: (34) 91-787-7292

2) 여권 분실

- 주 스페인 대사관 또는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에서 임시여권 발급
 - 별도 구비서류 없음(신분증 제시 불요)
 - 임시여권 발급 수수료, 사진촬영비(대사관 내 즉석 사진촬영 가능) 등 20유로 필요(현금만 가능)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여권 발급 시간 약 2시간 이내(신청자 수에 따라 유동적)
 - 여권 분실자의 경우 재발급 전 육로를 통해서만 이동 가능(기차 및 버스 이용)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Calle Gonzalez Amig, 15 번지, 28033 - Madrid, Spain
 - 대표전화: (34) 91-353-2000 (근무시간 중, 월~금 9:00~18:00)
 - 긴급연락전화 : (34) 648-924-695 (야간·휴일 사건사고 발생시)

- 주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Passeig de Gracia 103 번지, 3층, 08008, Barcelona, Spain
 - 대표전화: (34) 93-487-3153 (근무시간 중, 월~금 9:00~13:30, 15:30~17:00)
 - 긴급연락전화 : (34) 682-862-431 (야간·휴일 사건사고 발생시)

3) 가방 및 소지품 분실 시

- 인근 경찰서에 분실 신고 (여행자보험 보상 청구 등)
- 스페인어 통역 필요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이용 (통화료 부과, +82 2 3210 0404)
- 최근 분실 및 도난된 우리나라 여권의 불법 이용이 적발된바, 가능한 인근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신고 권장

4) 신용카드 분실신고 관련 전화번호

- AMEX: (34) 900-814-500
- VISA: (34) 900-991-124
- Mastercard: (34) 900-971-231
- Bankia: (34) 916-024-680

5) 응급 전화번호(화재/범죄/의료)

- 화재(소방서:Bomberos)
Madrid Capital y Mostoles: 080
Comunidad: 112
- 긴급 의료지원(앰불런스)
Insalud: 061
Samur: 092
- Intoxicacines(가스·약물중독): (34) 91-562-0420
- 적십자: (34) 90-222-2292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와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가구 없이 주택을 빌리는 경우에도 주방용 기본 설비(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기, 식기 세척기 등)는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구를 포함해 임대할 시에는 각종 실내 가구 및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고급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수영장, 테니스코트, 헬스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임대 주택 매물은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나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여름 휴가철(7~8월)에는 임대주들이 대부분 휴가를 떠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학기 철인 9월에는 아파트 임대 수요가 증가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 힘들 수 있다.

임차 계약 해지 시 빈발하는 문제로 주재국 임대차 법상 임대인은 퇴거 시 임대 주택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또한, 임대 계약 시 통상 1~3달 치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계약해지 시 주택 내부 기물이 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금액을 제한 채 돌려주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입주할 때 집안 내부 사진을 찍어 퇴거 시 주택이 원상태임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차 보증금은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 보통 1개월,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 2~3개월 치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보증금은 가급적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보증금을 주인에게 납부하는 대신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AVAL)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은행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 사인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한 후 사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주택임차료와 공동관리비, 부동산 세금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세 등을 세입자가 부담한다.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보통 1~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위약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임차 이외 방법으로는 주택 내 방을 빌려 홈쉐어(Home Share)식으로 머무는 방법도 있다. 단기 체류 또는 연수 등의 목적으로 체류 시 임차료 부담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시내에는 방만 임대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한국 주재원들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로 외국인 학교 인근지역(Pozuelo de Alarcon, Mahadajonda, La Moraleja, Ciudad Lineal, Hortaleza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직거래가 가능해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부동산 중개업자도 이러한 사이트에 광고를 올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올려진 사진과 실제의 집의 모습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찾아가서 집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추천한다.

- 주택 임차 관련 검색 사이트
 - www.idealista.com(지역별, 금액별, 규모별 검색 가능)
 - www.fotocasa.es
 - <https://www.vibbo.com> (해외전용 url)
 - www.enalquiler.com
 - www.uniplaces.com

- www.pisocompartido.com
- www.habitaclia.com

전화

○ 무선 전화 및 인터넷

스페인의 주요 무선 통신 서비스 기업은 Movistar, Orange, Yoigo, Vodafone 등이 있다. 선불제 또는 월간 후불제 등을 통해 무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위해선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NIE)이 요구된다.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 금액은 업체에 따라 크게 상이하나, 대략 월 15유로에 패키지 서비스(전화통화 30분, 인터넷 6GB 포함)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은 시내 곳곳에 위치한 각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선불제 서비스를 이용할 시 대리점 외 주요 슈퍼마켓 등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2017년 6월부터 유럽연합(EU) 국가 간 통화 및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무료화되어, 스페인에서 구입한 유심칩을 유럽연합 내에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유선 전화 및 인터넷

스페인은 한국과 달리 유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설치까지 최소 2일에서 최대 몇 주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은 되도록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시 통신회사 직원이 방문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날짜만을 통보한 후 방문하는 등 설치 시 불편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

최근 들어 현지 통신사들은 전화와 인터넷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만 설치하는 것과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더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다. 유선 통신 패키지 최소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신청 시 현지 스페인 계좌와 외국인등록증(NIE)이 요구된다.

전압/플러그

220V, 5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플러그 어댑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식수

국제생수협회(International Bottled Water Association)에 따르면, 스페인의 1인당 생수 소비량은 2020년 기준(2022년 5월 확인 최신 데이터) 32.1갤런(121.5리터)으로 전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페인의 수도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편이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2022년 5월 확인 최신 데이터)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수도물 중 98.5%가 식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밖에, 스페인 소비자보호기관(OCU)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수도물 품질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Burgos, San Sebastian, Las Palmas이며, 식수로 사용은 가능하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지역은 Barcelona, Ciudad Real, Logroo 등이 손꼽힌다.

다만, 한국에 비해 수도물 내 석회수 함량이 높아, 스페인 국민들은 대부분 필터가 장착된 물병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정기적으로 구입한다. 최근 스페인 내에는 가정 및 사무실에 생수를 배달해 주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생수 구입이 번거롭거나 수도물 냄새 및 성분에 민감한 경우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페인 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은 아직 많지 않으나, 일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마드리드 내 식수 정기배송 서비스 업체

- Aquaservice(<https://www.aquaservice.com/>)
- Agua Eden(<https://www.aguaeden.es/>)
- Doiser(<https://www.doiser.com/>)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스페인인 유럽 내에서 독일, 프랑스에 비해 차량 가격이 조금 비싼 편으로 신차 구입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신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년 내지 5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위기 영향으로 각종 가격할인 및 무상보증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많으므로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 중고차량을 구입 희망할 시에는 중고차 전문상을 통해서 사거나 개인과 직접 거래해 구매할 수 있다. 중고전문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전문상에서 사전 자동차 상태 점검 및 6개월~1년 기간의 엔진 등 주요 부품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어 비용 면에서는 개인 거래보다 훨씬 비싸다.

신차 판매 딜러들의 경우도 미리 등록해둔 차량이 재고로 남을 경우 'km 0' 제품으로 중고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데, 등록만 마쳤을 뿐 무늬만 중고차량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 거래 시에는 직거래로 가격 면에서는 유리하나 자동차 상태와 품질에 대한 보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구매 희망 차종에 대한 가격정보를 미리 입수해 구매 시 가격조율에 참고하도록 한다.

1) 차량 매매 전문 사이트

- www.coches.net(신차/중고/km0)(해외전용 url)
- <https://www.vibbo.com/motor-de-segunda-mano/> (중고)(해외전용 url)
- www.autoscout24.es(신차/중고/km0)
- www.motor.es(신차/중고/km0)
- www.autocasion.com(신차/중고/km0)
- <https://carnovo.com>(신차/중고)
- <https://www.coches.com/>(신차/중고/Km0)

2) 주요 중고차 전문매매상

- www.canalcar.es
- www.autofesa.com
- www.occasionplus.com
- www.automovilesalhambra.es
- <https://www.coches.net/segunda-mano/>
- <https://www.autocasion.com/>
- <https://www.flexicar.es/coches-segunda-mano>

차량가격

- 중형승용차(1,500cc 신차, 기본사양) 15,000~25,000유로
- 무연휘발유 1L(옥탄가 95 기준) 1.902유로(2022년 5월 10일)
- 자동차 등록비: CO2 배출량에 따라 차량 매가의 4.75~14.75%(전기차 면제)
- 자동차 보험료(풀 커버리지 기준): 기종에 따라 약 700유로~1,500유로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증은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돼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올 경우 교통국에서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만, 스페인 거주허가증 보유자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다. 거주허가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시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곧바로 차량 구입 및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와야 한다. 스페인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수속은 지방교통국에서 한다. 신청서가 있으면 먼저 수수료부터 납부하고 번호를 수령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는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져올 경우 6개월간 운전할 수 있으며, 한국 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운전면허 교환에 드는 수수료는 약 23유로, 적성검사에 드는 비용은 50유로 미만이다.

면허증 교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서(대사관 영사과에서 수속)
- 스페인 거주증 또는 학생 체류증(원본 및 사본)
- 본국 여권(원본 및 사본)
- 본국 운전면허증(원본 및 사본)
- 적성 검사증: Centro de Reconocimiento에서 실시(교통국 주위에 많다), 가격은 50유로 미만이며 유효기간은 90일 정도. 운전자에게 정신적 문제나 신체적 결함이 없는지를 검사
- 흰 배경의 증명사진(32X26mm)
-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교통국에 비치, 또는 교통국 홈페이지(www.dgt.es)에서 출력 가능
-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27.70유로)
- 신청인 확인서(운전면허증이 2000년 1월 14일 이후 발급된 경우)
-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피위임자가 무료로 수속을 해준다는 진술서 필요

스페인에서 운전면허 교환 수속은 1~3개월 정도 걸린다.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스페인에서 운전면허를 직접 따는 경우엔 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운전교육 학원(Autoescuela)에서 실습을 1번 하는 비용은 30유로 정도이며, 보통 10번 이상의 실습을 하므로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BBVA
- Santander
- Unicaja
- La Caixa
- Cajamar
- Bankinter
- Bank Sabadell
- Banco Popular
- Ibercaja
- Liberbank

계좌 개설방법

스페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자 또는 스페인 외국인 등록증(NIE) 보유 시에는 거주자 계좌를 열 수 있으며, 여권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비거주자 증명서(Certificado de no residente)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언어 문제 등으로 경찰서에서 비거주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꺼려질 경우 은행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수수료(약 20유로 내외)가 부과된다.

스페인은 은행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나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절감될 수도 있으므로, 계좌 개설을 검토할 때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비교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 위기 이후 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편으로, 장기(2~3년) 급여이체 조건부로 스마트 TV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최초 정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익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미국인 학교(American School of Madrid- ASM)

도시명	Madrid
커리큘럼	정형화된 입학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장 또는 입학담당 교무주임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결과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한다. 대개 영어(구두 및 필기)와 수학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수학 시험의 경우 문제 자체의 수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어로 된 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은 어려운 편이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제는 유치원 3년(pre-kinder, kinder1, kinder2)과 1~12학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1년에 2학기 제도이다(1학기 9월, 2학기: 2월).
학비	○ 한 학기 기준(Tuition Private) - Kdg. 1~2: 4,730.50 EUR / Kdg. 3: 4,917.00 EUR - Grades 1~2: 6,970.00 EUR / Grade 3~5: 7,824.50 EUR / Grade 6~8: 9,485.00 EUR / Grades 9~12: 10,230.50 EUR
홈페이지	http://www.asmadrid.org/
비고	마드리드 미국인 학교(ASM)는 마드리드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도시인 포수엘로 데 알라르곤(Pozuelo de Alarcon)이라는 부유한 거주 지역에 위치한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차로 통학하는데 15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시내에서 Pozuelo로 세르카니아(Cercanias: 마드리드와 근교를 연결하는 교외철도)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 이메일: info@asmadrid.org - 전화번호: +34 91 740 1900

○ 스페인국제학교(International College of Spain- ICS)

도시명	Madrid
커리큘럼	정형화된 입학시험은 없으며, 일단 학교장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영어 및 수학 시험을 실시한다. 미국인 학교보다 시험이 어렵지 않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인 학교의 대안으로 많이 선택되며, 고학년 과정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제는 유치원 3년과 1학년~12학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1학기: 9월, 2학기: 1월, 3학기: 4월)
학비	○ 한 학년 기준 - Kdg 3, 4: 9,840EUR / Infants: 10,500EUR - Grade 1~2: 13,650EUR /Grade 3~5: 15,120EUR /Grade 6~8: 18,090EUR /Grade 9~10: 19,800EUR /Grade 11~12: 20,700EUR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
비고	마드리드에서 영어로 지도하는 IB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1980년도에 세워진 학교이며 ICS의 모기업은 노드 앵글리아 교육재단이다. - 이메일: info@icsmadrid.org / admissions@icsmadrid.org - 전화번호: +34 91 650 2398

◦ 영국인 학교(British Council School of Madrid)

도시명	Madrid
커리큘럼	영국인 학교는 영어와 스페인어 2개국어로 동시에 교육을 시키므로 2개 언어를 다 잘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영국인 학교가 영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 분위기가 엄격해 학생에 대한 체벌이 있고, 낙제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스페인 거주 후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계획인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자칫 과락하는 경우 향후 한국 대학의 특례입학 대상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학시험은 매 학년 2학기에 실시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먼저 1년간의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은 후, 1년간 학생의 성적 및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초등학교: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 중학교: 지식 시험,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거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 고등학교: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학 필기시험(영어,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시험 실시). 고학년은 과학 시험과 작문 시험 중 택일 가능 면접: 과거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학제는 유치원 3년과 초, 중, 고등학교 1~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1학기: 10월, 2학기: 1월, 3학기: 4월)
학비	별도 문의
홈페이지	https://www.britishcouncil.es/
비고	1940년에 세워진 학교로 3세부터 18세를 위한 수업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영국인 학교 또한 미국인 학교와 같이 Pozuelo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 - 이메일: somosaguas@britishcouncil.es - 전화번호: +34 91 337 36 36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밀라그로사 학교(Colegio La Milagrosa de Madrid)

도시명	Madrid
커리큘럼	가톨릭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개설되어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학교가 아님에도 영어와 스페인어 2개국어로 교육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학비	별도 문의
홈페이지	http://www.lamilagrosamadrid.es/
비고	이메일: lamilagrosamadrid@planalfa.es 전화번호: +34 91 462 30 66

마. 병원

◦ Hospital Clinic Barcelona

도시명	Barcelona
주소	Carrer de Villarroel, 170, 08036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2 27 54 00
진료과목	종합대학병원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 Hospital Quironsalud Barcelona

도시명	Barcelona
주소	Plaça d'Alfonso Comín, 5, 08023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2 554 000
진료과목	종합사립병원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 HM 마드리드 대학병원(Hospital Universitario HM Madrid)

도시명	Madrid
주소	Plaza del Conde del Valle de Suchil, 16, Madrid
전화번호	(+34) 902 08 98 00
진료과목	종합대학병원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 라 밀라그로사 병원(Hospital La Milagrosa)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de Modesto Lafuente 14, Madrid
전화번호	(+34) 914 47 21 00
진료과목	종합사립병원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 산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병원(Hospital San Francisco de Asis)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de Joaquin Costa 28, Madrid
전화번호	(+34) 915 61 71 00
진료과목	종합대학병원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 Hospital San Rafael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Serrano, 199, 28016,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5 646 944
진료과목	종합대학병원. 중환자 치료 전문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도시명	Las Rozas de Madrid
주소	Calle Juan Ramón Jiménez, 3, 28232 Las Rozas de Madrid, Madrid
홈페이지	https://www.lasrozasvillage.com/es/home/
비고	마드리드 시내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아울렛이다. 100여 가지의 명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 마드리드 인투 사나두 쇼핑센터(Centro Comercial Intu Xanadu)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Puerto de Navacerrada, km 23, 5, 28939 Arroyomolinos, Madrid, Spain
홈페이지	https://www.intuxanadu.com/
비고	152,887제곱미터의 규모로 각종 오락 시설과 아쿠아리움, 레스토랑, 미용실, 각종 상점 및 영화관이 한곳에 모여있는 쇼핑몰이다.

◦ 더 스타일 아울렛(The Style Outlets)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Salvador de Madariaga, San Sebastian de los Reyes, Madrid
홈페이지	https://ss-de-los-reyes.thestyleoutlets.es/es
비고	마드리드 시내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아울렛으로 의류, 액세서리, 홈 브랜드 등의 매장 및 식당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복합 물이다.

◦ 엘 고티에 잉글레스(El Corte Ingles)

도시명	Madrid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79, 28003 Madrid
홈페이지	https://www.elcorteingles.es/
비고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Nuevos Ministerios)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페인의 공식 백화점 El Corte Ingles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본점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 프린시페 피오 쇼핑센터(Centro Comercial Principe Pio)

도시명	Madrid
주소	Paseo de la Florida, 2, 28008 Madrid
홈페이지	https://principio-pio.klepierre.es/
비고	기차역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만든 곳으로 의류매장, 식당, 미용실, 영화관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쇼핑 물이다.

◦ 라 바구아다 쇼핑센터(Centro Comercial La Vaguada)

도시명	Madrid
주소	C/ de Monforte de Lemos, 36, 28029 Madrid
홈페이지	https://www.enlavaguada.com/
비고	마드리드 시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형마트, 의류매장, 식당가, 영화관 등이 모여있다.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 식품점

◦ 엘 고티에 잉글레스 슈퍼마켓(El Corte Ingles Supermercado)

도시명	Madrid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87, 28046 Madrid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잡화
비고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구매 상품을 받아보거나 직접 마켓에 가서 픽업 가능하다. 배송의 경우 100유로 이상 구매시 무료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까르푸 마켓(Carrefour Market)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de Fuencarral, 158, 28010 Madrid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잡화
비고	까르푸는 스페인 내 206개의 대형마트와 127개의 슈퍼마켓 등을 운영 중이다.

◦ 메르까도나(Mercadona)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Serrano, 61, 28006 Madrid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잡화
비고	스페인에 1,6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1시간 내로 집까지 배달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상품을 전달받을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서울식품점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Bravo Murillo, 122, Madrid
취급 식료품	라면, 장류, 반찬류, 즉석식품 등 한국 식재료 전반
비고	전통시장인 Mercado de Maravillas 내 위치한 한국 식품점으로, 60유로 이상 구매 시 마드리드 시내 전역으로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 한스식품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Maestro Guerrero, 6, Madrid
취급 식료품	라면, 장류, 반찬류, 즉석식품 등 한국 식재료 전반
비고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한국 식품 전문 슈퍼마켓으로, 왕궁 및 스페인 광장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다.

◦ 수창식품

도시명	Madrid
-----	--------

주소	Plaza de los Mostenses 1, Planta 2
취급 식료품	라면, 장류, 반찬류, 즉석식품 등 한국 식재료 전반
비고	전통시장인 Mercado los Mostenses 내에 위치한 한국 식품점이다.

◦ 알캄보(Alcampo)

도시명	Madrid
주소	Centro Comercial Plaza Río 2, Calle de Antonio López, 109, 28026 Madrid, Spain
취급 식료품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식료품
비고	스페인 전역에 약 37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유로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 KORE MARKET

도시명	Madrid
주소	Calle de Huelva, 4, Nave 4, 28343 Valdemoro, Madrid, Spain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온라인 한국 식품점(http://www.koremarket.com/)으로, 49유로 이상 구매시 배송비가 무료이다.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Arian Gimnasio

도시명	Madrid
주소	C/Flora 3, 28013 MADRID
홈페이지	http://www.gimnasioarian.com/
소개	수영장과 스파시설을 갖춘 솔광장 근처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

◦ Real Club de la Puerta de Hierro

도시명	Madrid
주소	Av. de Miraflores, s/n, 28035 Madrid
홈페이지	https://www.rcphierro.com/index.php
소개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골프장

◦ Club de Campo Villa de Madrid

도시명	Madrid
주소	Km 2, Carretera de Castilla, 28040 Madrid
홈페이지	https://www.ccvn.es
소개	수영장과 승마시설을 겸비한 마드리드 서부의 골프장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동방박사 축일	2023-01-06	2023-01-06
산호세의 날	2023-03-20	2023-03-20
성목요일	2023-04-06	2023-04-06
성금요일	2023-04-07	2023-04-07
노동절	2023-05-01	2023-05-01
마드리드 자치주의 날	2023-05-02	2023-05-02
성탄절	2023-12-25	2023-12-25
성모 승천 대축일	2023-08-15	2023-08-15
국경절	2023-10-12	2023-10-12
만령제	2023-11-01	2023-11-01
성 알무데나의 날	2023-11-09	2023-11-09
제헌절	2023-12-06	2023-12-06
성모마리아 대축일	2023-12-08	2023-12-08
성 이시드로의 날	2023-05-15	2023-05-15

〈자료원 :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마드리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95, Torre Europa, planta 9, KOTRA, Madrid, 28046, Spain
- 전화번호: +34-91-556-6241
- 이메일: admin1@kotraspain.org
- 홈페이지(한국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513>
- 홈페이지(스페인어): www.kotraspain.org
- 근무시간: 월~금(09:00~13:30, 14:30~18:00)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지하철: 공항에서 지하철 8호선 승차-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역 하차(Nuevos Ministerios)-10호선으로 갈아타기-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역 하차(Santiago Bernabeu)하면 무역관에 도착한다. 총 요금은 5.00유로이며, 약 30분 소요된다.
 - 버스: 공항에서 ALSA 버스 224번에 승차해 아베니다 데 아메리카(Avenida de America) 역에서 하차해, 10호선으로 갈아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역에서 하차(Santiago Bernabéu)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갈아탈 때 발생하는 시간과 거리를 감안할 때,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경제적이다.
 - 택시: 공항-마드리드 무역관(또레 에우로빠, Torre Europa)까지 요금은 약 30유로로 고정금액이 적용되며, 교통체증이 없을 시 약 15분이 소요된다.
 - 2022년 5월 10일 기준, 스페인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해제 되었으나,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되고 있다.
-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